

서울시민의
아름다운 삶을 위한
평생 건강주치의,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왕진 가방

2015 SUMMER



2015 SUMMER

왕진가방

서울시민의 아름다운 삶을 위한
평생 건강주치의,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왕진가방 2015년 여름호 제126호
병원이념 감동서비스가 있는 시민의 병원
발행인 김민기
편집인 김현숙
편집주간 홍보팀
발행처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서울 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56)
홈페이지 www.seoulmc.or.kr
02)2276-7000
디자인 디자인한

서울의료원과 함께 만드는 눈부신 여름,
지원한 여름 보내세요.



page.

/

14



page. 0405

활기찬 여름 여름철 피부노화의 주범 일광화상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지켜라!

page. 0607

건강한 내일 너무 빨리 뛰는 심장, 너무 느리게 뛰는 심장

page. 0809

빛나는 희망 알쏭달쏭, 내시경에 대한 모든 것

page. 1011

건강을 만드는 사람들 속마음버스를 아시나요?

page. 1213

여름에 만난 사람 I 신장내과 김민영 과장

page. 14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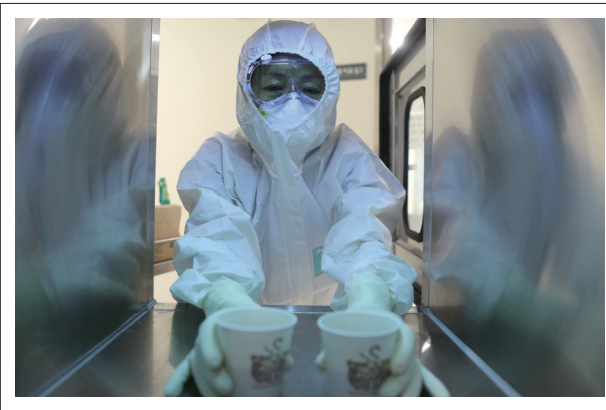
여름에 만난 사람 II 소아청소년과 서현주 과장



page.

/

18



page. 1617

환자안심병동 서울의료원 안심병동을 이용하면
일석삼조를 거둘 수 있습니다

page. 1821

메르스 특집 서울의료원, 50여 일간의 메르스 전문병동 이야기

page. 2223

메르스 특집 서울의료원이 있어 고맙습니다!

page. 2425

메르스 특집 “메르스를 물리치는 백신이 없다고요?”

page. 2627

왕진가방 캠페인 삼복더위를 물리칠 한여름 대표 보양식, 삼계탕

page. 2829

문화사색 I 태해! 조국을 너무나 사랑했던 불꽃!



page.

/

34



page. 3031

문화사색 II 영화 ‘구글 베이비’를 보고

page. 3233

그림에 담긴 이야기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이야기

page. 34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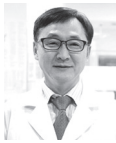
아름다운 동행 I 라오스 의료봉사활동에서 만난 맑은
눈빛과 반짝거리는 마음들

page. 3637

아름다운 동행 II 서울의료원의 나눔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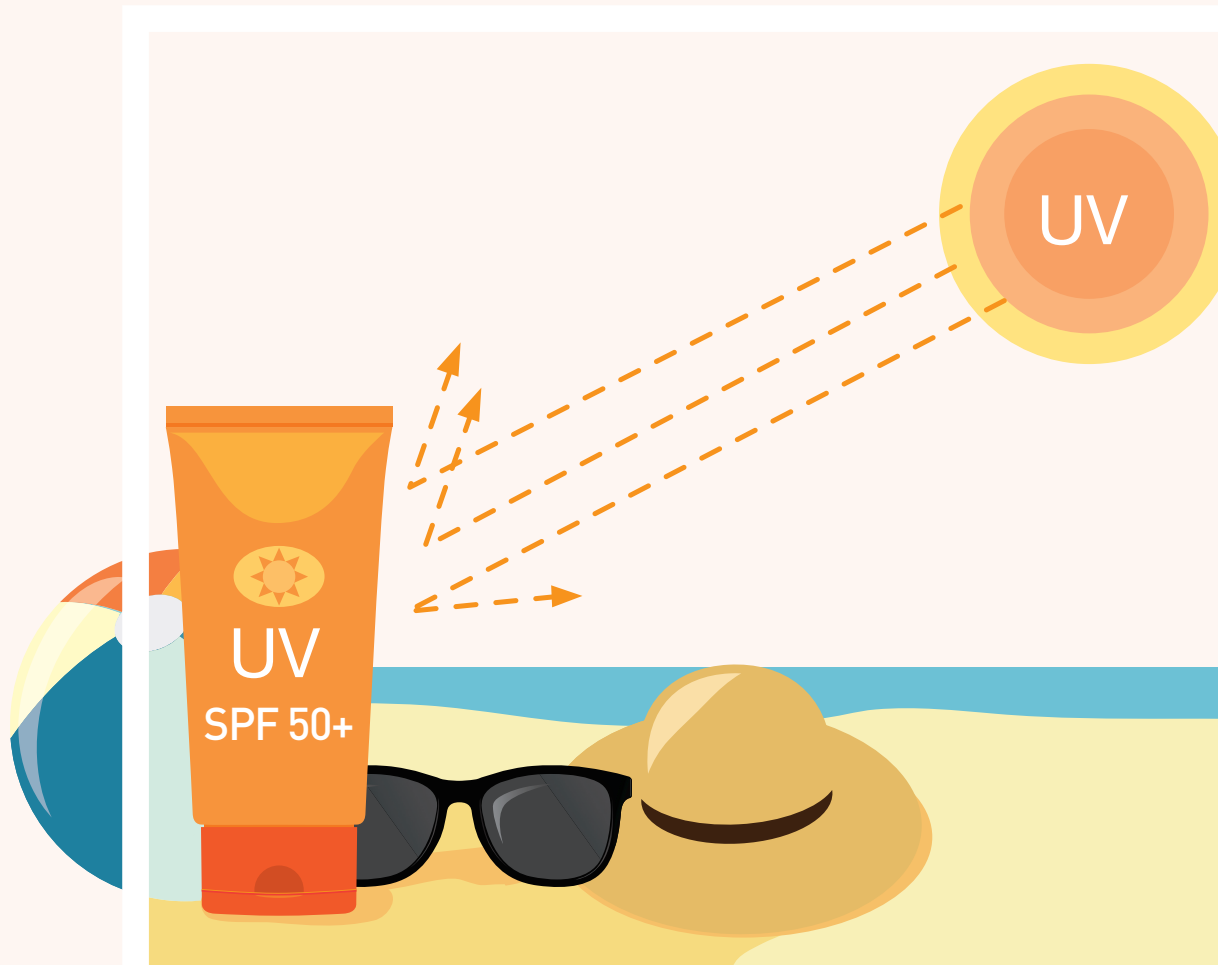
page. 38

서울의료원 공익의료발전 후원회 하늘에서 선물한 나눔,
그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여름철 피부노화의 주범 일광화상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지켜라!

방학이나 휴가를 맞이하여 산, 계곡, 바다 또는 해외로 나들이 가는 여름이 다가왔다. 어릴 적 밖에서 놀다가 피부가 빨개지고 따가워서 밤잠을 설쳤던 기억이 누구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피부가 자외선에 과도하게 노출되면서 붉어짐, 화끈거림, 가려움 등 심한 경우에는 물집이 생긴 후 피부가 벗겨지는 경우를 일광화상이라고 한다. 여름철 질환 중 하나로 자외선에 피부가 손상되는 일광화상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자.



자외선을 피하는 세 가지 방법

일광화상은 피부가 하얀 사람일수록 더 쉽고 심하게 발생하며 증상은 보통 일주일 내외로 지속된다. 대부분 흉터나 다른 합병증 없이 좋아지나 여름철 추억으로 그럴 수도 있지 하며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자외선에 지속적으로 장시간 노출되어 피부가 손상되면 기미, 주근깨가 발생하게 되며 피부 노화가 속도가 빨라져 피부 탄력 감소와 함께 주름이 많이 생긴다. 또한 피부암과 백내장 발생도 증가한다. 더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30세 이후에 심하게 나이 들어 보이고 피부암 발병률이 높은 것도 자외선 노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방법은 **첫째**, 모든 손상의 예방법과 마찬가지로 원인과 접촉하지 않는 것이다. 특히 자외선 양이 늘어나는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까지 가급적 야외에 나가지 않는 것이 좋다. **둘째**, 야외에 나가게 되면 선글라스, 챙이 넓은 모자, 양산을 사용한다. **셋째**, 자외선차단제(선크림)를 충분히 바른다.

자외선차단제는 집안 등 실내에서는 SPF10 전후, PA+ 제품을 사용하고, 간단한 야외 활동에는 SPF15~30, PA++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운동 등 야외 활동에는 SPF30, PA++ 이상을 사용하고 장시간 강한 자외선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SPF50+, PA+++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SPF와 PA 등급이 높을수록 자외선 차단 효과가 크나 피부에 민감할 수 있어 적절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자외선차단제는 외출하기 30분 전에 노출되는 모든 피부에 발라주고, 2~3시간 간격으로 덧바른다. 땀이 많이 나거나 수영, 해수욕 등의 활동을 할 때에는 방수성(워터 프루프 형)으로 물에 잘 씻기지 않는 제품을 바르는 것이 좋다.

스프레이형 자외선차단제를 얼굴에 사용할 때는 눈, 코에 들어가거나 흡입하지 않도록 반드시 손에 덜어 사용하여야 한다. 어린이에게 처음 사용할 때는 손목 안쪽에 적은 양을 미리 바른 후 알레르기 발생 등 이상 유무를 확인 후 사용해야 한다.

열을 내리고 수분을 보충해

피부를 진정시켜야

치료법으로는 작은 부위에는 얼음찜질, 넓은 부위에는 찬물 샤워를 하는데 시간은 20분 내외로 하는 것이 좋다. 어린이는 몸을 떨 정도의 찬물은 피해 너무 차지 않은 물로 샤워를 하며 몸을 떨 때에는 중단하여야 한다.

통증이 지속될 때에는 얼음찜질, 찬물 샤워를 2~3회 반복하고 소염진통제를 복용한다. 허물이 벗겨지는 증상은 정상적인 회복과정 현상이므로, 억지로 떼어내지 말고 그대로 두거나 보습제 정도만 발라주면 된다. 피부연화제나 보습제를 바르는 것은 피부의 건조나 홍반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넓은 부위의 일광화상, 염증이나 통증이 심한 경우, 물집이 발생한 경우에는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는 것을 권장한다. 일광화상의 가장 좋은 치료법은 예방이다. 자외선이 강해지는 여름철, 피부노화의 주범인 자외선으로부터 벗어나 젊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고 여가의 후유증도 최소화하자.

T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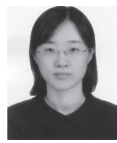
자외선차단제의 효과를 높이는 법

- 자외선 차단제는 햇볕에 노출되기 30분 전에 미리 바르는 것이 좋다.
- 햇살이 강한 날 야외활동을 오래 할 경우 2시간 단위로 덧발라 줘야 한다.
- 얼굴에 바를 때는 손가락 한마디에 자외선차단제를 듬뿍 찍어서 충분한 양을 발라줘야 한다.
- 얼굴에는 크림형, 몸에는 로션형이 좋다.



일광화상 응급처치 법

- 피부 온도를 낮추기 위해 해당 부위를 시원한 물에 담근다.
- 얼음찜질, 오이, 감자 등을 갈아서 얹어두면 도움이 된다.
- 통증이 가라앉으면 보습제를 발라 피부 수분을 유지한다.
- 물집이 생겼다면 최대한 터뜨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 껍질이 벗겨지면 일부러 더 벗겨내지 말고 병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는다.



너무 빨리 뛰는 심장, 너무 느리게 뛰는 심장

심장은 우리 몸의 혈액을 순환시키기 위해 쉼 없이 일하고 있다. 하루에 보통 8만 번에서 14만 번 가량 뛰는 것을 알면 놀랄 것이다. 심장이 쉬지 않고 뛰는 것은 심장 내부에 스스로 전기신호를 발생시키고 이 신호를 전달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덕분이다. 쉽게 말해 자체 발전소와 변전소, 그리고 전깃줄을 가지고 있어서 전기신호를 심장근육으로 보내어 힘을 발휘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기 신호가 빠지거나 교란된다면 심장은 이상한 신호를 받고 그 신호에 따라 이상하게 뛸 것이다.

낮선 그 이름, 부정맥



‘부정맥’(不整脈)이라는 말은 흔히 쓰는 말이 아니라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 글자씩 떼어서 ‘맥이 고르지 않은’ 여러 질병을 통칭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부정맥의 종류는 매우 많지만, 대개 맥이 너무 느리거나 너무 빠른 것, 혹은 불규칙함이 심한 것들이 치료의 대상이다.

첫째, 맥이 느린 부정맥은 어지러움, 실신, 운동 시 호흡곤란의 증상을 보인다.

둘째, 맥이 빠른 부정맥은 두근거림(어지러움이나 호흡곤란이 동반될 수 있음)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맥이 불규칙한 부정맥은 두근거림, 호흡곤란을 나타내며 증상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심부전과 뇌졸중의 위험도를 높인다. 그 외에 드물지만 급사와 관련된 부정맥도 있다.

심장의 전기신호를 기록하는 심전도 검사를 하면 부정맥 중 어떤 질환인지를 진단할 수 있다. 문제는 부정맥이 지속적으로 있는 상태가 아닌 간헐적으로 있는 경우가 많아 부정맥이 나타났을 때 즉, 증상을 느꼈을 때 심전도 검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의료원에서는 ‘24시간 심전도 기록’ 혹은 ‘일상생활의 간헐적 심전도 감시’를 시행하고 있다.

심혈관센터 시술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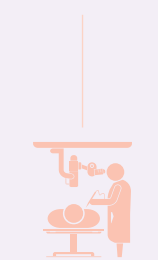
인공심박동기와 고주파절제술로 심장 전기신호 정상화



부정맥의 치료는 약물치료 뿐만 아니라, 각종 시술을 통한 다양한 치료방법이 마련되어 있어서 약물치료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예전에 진료한 환자분들의 사례를 통해 다양한 치료방법을 소개해드리고자 한다. 70대 중반의 어르신을 모시고 자녀분들이 오셨다. “아버지께서 자주 까무러치세요.” 그분의 심장은 제때 전기신호를 내보내지 않아서 심장이 너무 느리게 뛰어 생긴 문제였다. 제가 “어르신, 심장 내의 발전소가 고장 나 발전소 역할을 대신해줄 인공심박동기를 몸에 심는 수밖에 없겠어요”라고 말씀드리자, 어르신은 사실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몸에 기계를 심느냐며 거절하시다가 자녀분들의 설득에 못 이겨 입원하셨다. 피부에 부분마취만 하고 작은 인공심박동기를 넣는 시술은 연세가 많은 분들에게도 큰 부담이 되지 않기에 시술 이틀째에 퇴원을 하였고, 이후로 심장이 제대로 신호를 안 내보낼 때마다 인공심박동기가 그 역할을 대신해 주어 실신하는 일이 없어졌다.

10년 전부터 가끔 심장이 심하게 뛰는 증상이 있었던 30대 여성은 최근에 두근거리는 증상이 자주 발생하고 몇 시간씩 지속되어 응급실에서 주사를 맞아야만 두근거림을 멈출 수 있었다. 응급실에서 찍은 심전도 결과를 확인하니 심장 안에 비정상적인 전기신호를 전달하는 길이 있어서 그걸 타고 전기신호가 뱅글뱅글 돌면서 생기는 빠른 부정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약을 계속 복용하면서 사정은 나아졌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고주파절제술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내원하였고 시술을 통해 비정상적 전깃줄을 성공적으로 절제했다. 시술 다음날 환자는 복용해오던 약을 끊고 퇴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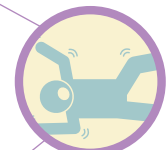
부정맥 분야가 아직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보니 부정맥 질환으로 인해 어지러움, 실신, 숨이 차거나 가슴이 빨리 뛰는 증상을 가진 환자들이 한참 고생을 하시다가 뒤늦게 오시는 경우가 많다. 부정맥 질환의 치료는 약물치료뿐만 아니라 각종 시술을 통한 다양한 치료방법이 있어 시술 후에는 즉각적인 치료효과를 볼 수 있고 장기간의 약물치료를 대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진료가 중요하기에 위와 같은 증상을 보일 경우 가까운 병원을 찾는 것이 좋다.



TIP



두근거림



실신



어지러움

부정맥 증상

첫째, 맥이 느린 부정맥은 어지러움, 실신, 운동 시 호흡곤란의 증상을 보인다.
둘째, 맥이 빠른 부정맥은 두근거림(어지러움이나 호흡곤란이 동반될 수 있음)으로 나타난다.



알쏭달쏭, 내시경에 대한 모든 것

한국인의 식생활이 점차 서구화됨에 따라 다양한 소화기 질환이 발생하고 있다. 기름진 음식 섭취는 역류성 식도염, 대장용종, 대장암의 발병률을 높이고 있으며, 짜게 먹는 식습관으로 인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은 위암 발생의 위험요소이다. 소화기 증상이 발생하면 자가진단으로 약을 복용하며 그냥 참고 지나가기가 쉬운데, 이런 경우 자칫 병을 키울 수 있어 문제가 되곤 한다. 위암 및 대장암 등은 1기에 치료하면 약 90% 이상의 생존율을 보이는 만큼 조기진단 및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가암검진사업으로 만 40세 이상의 대상자에게 2년마다 위장조영검사 또는 위내시경 검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 사전에 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자. 또한 50세 이상부터는 증상이 없더라도 5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대장내시경을 받을 것을 권하고 있다. 대장암 가족력과 같이 대장암 위험률이 높은 경우에는 그 전에 받을 필요가 있다.

내시경에 대한 궁금증



내시경 검사는 고통스럽지 않나?

일반적으로 쓰이는 위내시경 호스의 지름은 9.8mm 정도인데 식도를 통해 내시경을 삽입하게 되어 대부분의 환자가 구역감이나 인후통을 호소하며 일부에서는 질식감을 느끼기도 한다. 대장내시경의 경우 장의 굴곡이 심한 경우나 내시경 도중 공기 주입에 따른 통증을 호소할 수 있다. 이런 경험에 의해 내시경 검사가 꺼려지는 경우라면 수면내시경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수면내시경이라고 했는데 수면이 잘 안된 것 같다! 수면내시경 검사는 위험하지 않나?

수면내시경은 '수면상태' 또는 '전신마취상태'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는 '의식이 있는 진정상태'에서 받는 검사다. 진정약인 미다졸람이라는 약물을 맞게 되고 수 분 안에 정신이 몽롱해지는 진정상태나 가수면상태가 되어 내시경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의료진의 지시를 알아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검사를 받게 되지만 진정약 작용으로 인해 내시경 후에 기억을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환자에 따라 적정량의 약제를 투여함에도 불구하고 진정 상태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검사 후에도 검사과정을 기억하게 될 수도 있다. 진정약인 미다졸람은 약물의존성이 없으며 해독제도 있으므로 비교적 안전하다. 내시경 검사 중에 혈압이나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면서 환자 상태 평가-조치를 취하니 크게 걱정을 하지는 않아도 된다. 진정효과가 뒤늦게 나타나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으므로 보호자와 같이 오셔야 하고, 검사 당일엔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내가 받는 내시경은 깨끗한가?

서울의료원에서는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의 소독지침에 따라 매 검사 후 세척→소독→행균→건조의 과정을 거쳐 내시경 소독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조직검사 시 사용하는 기구들도 1회 사용 후 세척하고 멸균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대장내시경 전에 장정결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검사가 꺼려진다! 주변에서 힘들다고 많이 이야기해서 걱정인데, 어떤 점을 주의하면 도움이 될까?

많은 양의 장정결제를 먹는 것이 힘든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깨끗하게 장을 청소하는 방법이다. 용액을 차갑게 해서 마시면 좀 더 수월하게 먹을 수 있다. 힘들게 준비해놓고 장 내에 찌꺼기가 많이 남아서 내시경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검사하기 2~3일 전에는 섬유질이나 씨가 많은 채소-과일류는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정확한 검사를 위해 정해진 방법을 준수해서 장정결제를 복용해야 한다.





속마음버스를 아시나요?

‘인간은 모두 치유적 존재’라는 대전제에서 시작된 서울시민 힐링프로젝트 속마음버스의 캐치프레이즈는 ‘누구에게나 엄마가 필요하다’이다. 그동안 우리가 접해왔던 마음속 고민이나 갈등의 해결방법이 전문가가 일반인을 치유하는 권위적 수직적 방식이었다면 속마음버스의 프로그램은 일상생활 속에서의 관계를 개선하고 소통을 시작하기 위하여 속마음을 풀고 싶은 사람과 함께 속마음버스에 탑승하여 평소에 나누기 어려웠던 속 깊은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풀어간다.



카페처럼 내부공간이 꾸며져 있어 차분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제공

2인1조 두팀씩, 오후 6시와 8시 하루 2회 운행

속마음버스의 참여 신청은 홈페이지(www.momproject.net)에서 자신이 초대하고 싶은 지인을 지정해 마음을 전하고픈 내용을 편지형식으로 작성하여 참여를 신청하게 된다. 신청자들 중 참여자로 선정이 되면 여의도 출발지에서 시작해 마포대교-자유로-상암동을 거쳐 다시 여의도로 돌아오게 되는 1시간 50분 코스를 거치는데 이 코스는 차량흐름에 방해되지 않으면서 야경이 빼어난 곳으로 탑승자들의 마음을 더욱 편안하게 만들어준다.

버스에 탑승하게 되면 이쁜한 카페처럼 내부공간이 꾸며져 있어 차분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제공하며 속마음버스 프로그램에 따르는 경청 방법과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깊은 이야기를 듣게 된다. 특히 속마음버스의 프로그램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듣고 서로의 속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프로그램의 룰과 진행방식등, 정해진 과정을 잘 지켜나가면서 대화를 하게되면 서로간의 오해를 부드럽게 풀어갈 수 있다.

속마음버스 황소영 총괄매니저

“저희가 버스를 타신 분들을 대상으로 후기도 많이 받고 소감도 청취 하는데 ‘신기하게 이 버스에 타니까 정말 속마음을 이야기 했다’라고 하는 후기들이 많이 올라온 합니다. ‘버스라고 하는 특별한 공간에서 여행을 하듯 드라이브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하니 어떤 특별한 장치가 있다는 생각에 스스로도 마음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탑승객들과 사연 중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속마음버스 신청 사연에 ‘고등학교 때 아주 사소한 오해로 서로 소원해진 단짝 친구가 있었는데 시간이 10년 정도 지났지만 그 친구하고 오해도 풀고 다시 친하게 지내고 싶다’라는 사연을 저희 쪽에 보내면서 본인은 친구에게 연락 하기가 어려우니 대신 연락해서 초대를 좀 해달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보통 지인들하고 같이 타겠다고 하면 본인이 직접 지인을 데리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사연을 살펴보니 이해가 가더군요. 그래서 저희가 그 친구분께 연락을 했는데 그 친구분이 조금은 망설이다가 나가겠다고 해서 참여하시게 되었어요, 그 두 분이 속마음 버스에서 그때의 일과 그간의 살아온 일에 대해서 코스를 마치는 두 시간 동안 이야기하시고도 부족해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더 많이 얘기하자’면서 함께 웃으면서 하차하는 모습을 봤던 때가 인상에 많이 남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에는 2회 운행, 토요일은 3회를 운행하는 속마음버스는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4년 3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모두 1,127명이 탑승했다.

2015년 3월부터 서울의료원이 주관하여 운영하고 (주)다음카카오와 사단법인 다사랑회가 함께하는 속마음버스는 세 기관이 공동운영에 대한 협약을 맺고 더욱 많은 시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있다.

속마음버스

‘누구에게나 엄마가 필요하다’



평범한 일상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환자들과 오늘도 동행합니다

서울의료원 인공신장실은 넓은 공원을
끼고 남향으로 위치하고 있어 탁 트인
전망과 함께 넓은 창을 통해 따스한
햇볕이 들어온다. 따스한 햇볕을 맞으며
3층 복도를 따라 걷는 나의 걸음도
인공신장실이 가까워질수록 가벼워진다.



환자들과 가족처럼 가까워진 일상

2011년 삼성동에서 신내동으로 이전한 초기에는 이용환자가 많지 않아 인공신장실 대기실이 종종 비어 있는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대기실 의자가 부족해 보일 정도로 환자
와 보호자분들로 꽉 차 있다.

대기실에 앉아서 이틀마다 얼굴을 마주하는 그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한
지붕 아래 같이 사는 가족처럼 가까워진 느낌을 받는다.

그러나 대기실을 지나 인공신장실 안으로 들어가면 오늘도 전쟁이다. 대기실에 앉아
순서를 기다리면서 서로 재미나게 이야기를 주고받다가도 인공신장실 안으로 들어와 체
중을 재고 나면 이를 동안 불어난 체중에 환자 분은 얼굴을 붉히고 간호사는 환자의 식이
를 꼬치꼬치 캐물어가는 탐정 놀이가 시작된다. 그리고 나서는 투석으로 몇 킬로그램(kg)
을 뺄지 서로 밀고 당기는 얘기를 듣고 있노라면 시장에서 물건 값을 깎으려는 상인과 아
주머니와의 흥정 같기도 하다. 환자의 체중조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회진 시 ‘안녕하세
요’ 인사를 하며 환자의 다리를 스윽 만져보는 것은 이제 그들과 나의 인사방법이 되어버
렸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나면 나와 그들과의 흥정이 시작된다.

이전에는 곤히 자는 환자를 깨워 가며 회진을 할 필요가 있을까도 싶었는데 한 번은 곤
히 주무시는 환자를 그냥 지나쳤더니 나중에 서운해 하더라는 이야기를 보호자한테 들은
적이 있었다. 그래서인지 오늘도 곤히 자는 환자를 깨우며 반갑게 인사를 건네는 것은 내
일상이 되었다.



응급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안전시스템

서울의료원 인공신장실은 넓고 쾌적한 시
설, 최신 장비들을 갖추고 있어 환자분들에
게 편안하고 안전한 치료환경을 제공해드리고
있다. 충분한 공간을 두고 투석 침대가 자리
하여 답답함이 없고 침대나 휠체어 이동이 자
유로우며, 격리실이 따로 있어서 균 접촉 이
동이 차단된다. 또한 각 침대마다 텔레비전과
헤드폰이 설치되어 있어서 환자분들이 투석
받는 4시간 동안 지루하지 않게 보낼 수 있도
록 한다. 혈압 징후가 불안정한 환자는 집중
관찰 구역에서 투석 중 계속 활력 징후 모니
터링을 하면서 응급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동식 모니터가 충분히 구
비되어 있어 집중 관찰 이외의 구역에서도 투
석 받는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 투석 환자들에게 흔히 발생하는 혈관
통로 기능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매달 초음파
를 이용해 평가하고 있으며 혈관외과, 영상의
학과뿐만 아니라 신장내과 외적인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팀 활동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

66

국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2009년부터 혈액투석
기관의 질 관리를 위한
혈액투석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의료원
인공신장실은 2014년 평가에서
94.8점으로 1등급을 획득

99



한마음으로 환자를 위한 인공신장실 가족들

말기 신부전으로 인해 혈액투석을 받고 있
는 국내 환자 수는 2013년 말 기준 6만 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진료비도 1조 1,733억으로
단일질환으로는 가장 많은 보건의료자원이 투
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대부분의 혈액
투석 환자는 장기 의료이용자로 이어지기 때
문에 상태 악화나 추가적인 합병증 발생을 최
소화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적절한 관리가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에서도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을 통해 2009년부터
혈액투석 기관의 질 관리를 위한 혈액투석적
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의료원 인
공신장실은 2014년 평가에서 94.8점으로 1
등급을 획득했다.

이는 서울의료원 인공신장실이 혈액투석의
질 관리를 위해서 적정 혈액투석 전문 의사 비
율을 충족하면서 시설이나 장비, 환자 상태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환자에게 적절한
처방을 잘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 보호자, 간
호사, 의사 누구라 할 것 없이 모두가 한 가족
같이 지내려고 노력한다는 점이다. 서로 힘든
점은 얘기하고 이해하고 같이 가슴 아파하며,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함께 즐거워한다. 고달
픔은 반이 되고 기쁨은 배가 된다. 그래서 모
두가 서울의료원 인공신장실을 좋아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건강 증진을
실현하는 최고의 공공병원’을 향해 오늘도 최
선을 다 하는 서울의료원 인공신장실 가족들
에게 모두 감사드리며, 한마디 남긴다. “오늘
도 파이팅 합시다!”





어 생후 2주도 되지 않아 중심정맥관을 뺐다. 체중은 여전히 1kg이지만 '먹기만 하는 아기'가 되어 건강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다. 하루에 20~30g의 체중 증가를 목표로 아기는 모유에 미숙아 영양 보충을 위한 모유강화제를 섞어서 3시간마다 20cc 정도를 먹게 된다.

생후 63일째 되는 날, 건강하게 퇴원

생후 5주, 체중 1.4kg정도가 되었을 때부터 아기의 빠른 회복과 엄마와의 정서적 유대 증진을 위해 매일 면회시간마다 엄마의 체온과 심장소리를 느낄 수 있도록 엄마가 아기를 가슴 위에 올려놓고 안정시켜주는 '깁겨루 케어'를 했다.

무호흡이 있어 산소공급을 받았고 간간히 수유 곤란으로 금식 및 수유 제한이 반복되긴 했지만 교정 연령 34주가 되어 처음으로 젖병도 빨아 보고 먹는 연습도 하게 되었다.

어느덧 아기의 체중은 1.7kg이 되어 인큐베이터 밖으로 나와 스스로 체온조절을 하게 되었고 위관을 제거하고 본격적으로 젖병을 빠는 연습을 하였다. 합병증 발생 유무를 위해 여러 가지 검진도 진행하며 퇴원 준비를 했다. 드디어 집으로 가는 날, 아기의 체중은 2.1kg, 분만 예정일을 일주일 남긴 생후 63일째 되는 날이었다. 3시간마다 모유 45cc를 먹게 되어 별다른 합병증 없이 건강하게 퇴원하였다. 앞으로 소아청소년과 외래에서 아기가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을 하는지 주기적으로 추적 관찰을 할 예정이지만 엄마 품에서 잘 자라줄 것이라는 기대가 된다.

37주를 못 채우고 세상에 나온 아기, 이른둥이

보통 재태연령 37주 이상을 만삭이라고 하고 37주를 못 채우고 나온 아기를 예전에는 미숙아라고 했지만 요즘은 미숙아라는 단어의 부정적인 느낌 때문에 '이른둥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예전에는 미숙아라고 하면 대부분 장애아가 되고 병원비에 대한 부담 등 좋지 않은 인식이 많았다. 하지만 신생아학의 발달과 최신 의료기술의 도입으로 많은 이른둥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되었다. 신생아중환자실의 병원비는 100% 의료보험공단에 지급하기 때문에 보호자들의 경제적 부담도 거의 없는 편이다. 또한 본원에서는 출생 시 체중 1500g 미만으로 태어난 이른둥이를 대상으로 재활 의학과와의 협진을 통해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부터 평가와 치료가 이루어진다. 퇴원 후에도 정기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혹시나 아동의 발달이 늦어지는 경우 필요한 치료를 조기에 시작할 수 있어 장애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만 결혼 연령이 점점 늦어져 산모의 노령화와 난임 증가로 이른둥이들의 출생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재태연령 21주, 출생체중 490g으로 태어난 아기가 건강하게 퇴원한 기사도 있었던 것처럼 이른둥이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어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인식의 변화와 지지가 필요할 것이다.

980g 아기의 기특한 첫 울음소리

모처럼 연휴가 겹치고 날씨가 화창해 봄나들이 가기 좋은 아침, 980g의 작은 아기가 태어났다. 재태연령 30주의 이른둥이지만 아기는 세상에 나온 징표로 약하지만 의미 있는 울음소리를 내어주었다. 힘든 호흡으로 인해 곧바로 기관 삽관이 되었고 4층 신생아중환자실에 준비된 따뜻한 인큐베이터 속으로 들어갔다.

이른둥이들은 체온조절이 미숙하고 피부를 통한 수분손실이 많기 때문에 아기의 체온을 감지한 인큐베이터가 온도를 34도, 습도를 80%에 맞춘다. 미성숙한 폐로 인한 호흡곤란 치료를 위해 기도관을 통해 폐계면활성제를 투여하고 인공호흡기 치료가 시작된다. 만삭아처럼 구강수유를 바로하지 못하기 때문에 총정맥영양이나 약물 공급

을 위해 오른쪽 팔 정맥으로 중심정맥관도 삽입한다. 다행히 아기는 빠른 호전을 보이고 동맥관개존증도 없어 생후 3일째 인공호흡기를 떼었고 위관을 통한 모유의 공급도 시작되었다.

아기는 재태연령 34주, 체중 1750g정도가 되어 스스로 체온조절이 가능하게 되면 인큐베이터 밖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모든 시술이나 검사가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이루어진다.

생후 5일째 영상의학과에서 초음파 기계를 가져와 아기의 합병증 유무를 보기 위해 뇌초음파를 했고 생후 5주째 망막증 검진을 위해 안과 검사도 했다. 재태연령에 비해 출생체중이 10백분위수 미만인 자궁내발육부전이 있던 아이라 보통은 수유 진행이 잘 되지 않는 편인데 기특한 아기는 위관으로 들어오는 모유를 아주 잘 소화시켜 주

TIP

신생아중환자실



이른둥이 5대 건강수칙



정기적으로
건강 체크 받기



감염 예방
철저히 하기



호흡기 질환에
주의하기



퇴원 후 영양관리
꾸준히 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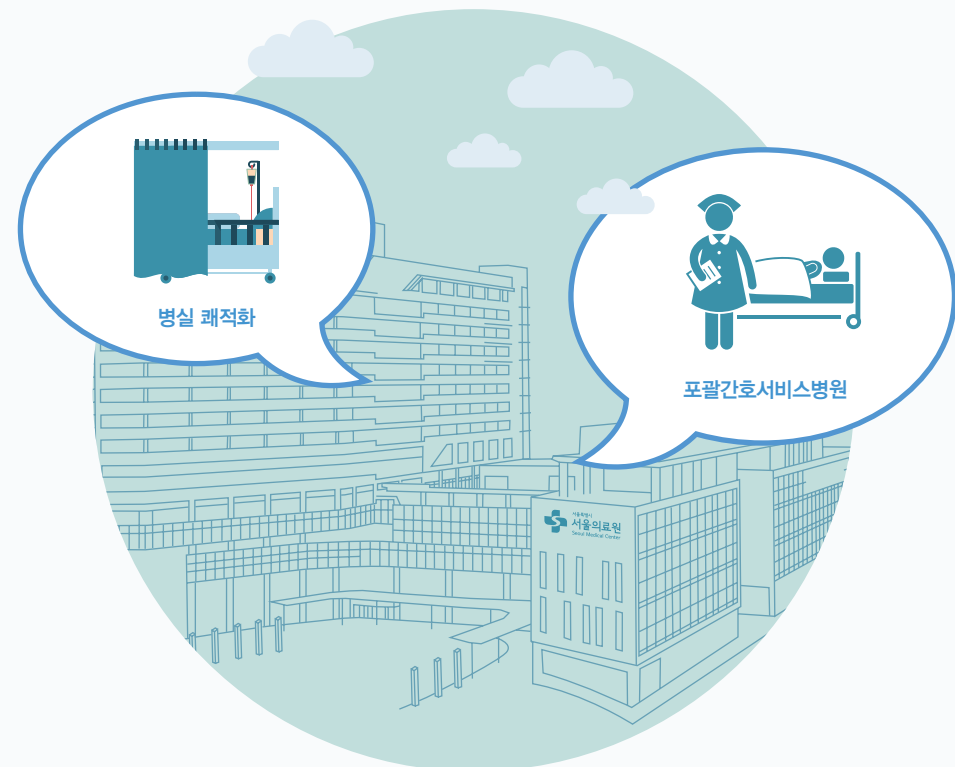


가족 모두의
사랑으로 돌보기



서울의료원 안심병동을 이용하면 일석삼조를 거둘 수 있습니다

저는 2014년 겨울에 엉덩이뼈 골절로 서울의료원에 입원하여 수술 치료를 받은 환자입니다. 당시 여러모로 경황이 없었는데 서울의료원의 치료 덕분에 건강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서울의료원은 의술 측면에서도 시설이나 장비 측면에서도 아주 좋은 병원입니다. 서울의료원을 칭찬합니다.



서울의료원 안심병동에서는 ‘간병’이 필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보호자들은 오지 않아도 되니 걱정 말라고 안심시켜 주는 간호사들의 말에 더욱 신뢰가 있습니다.

엉덩이뼈 골절로 수술을 받아야 했던 상황

지난겨울 집에서 커튼을 달려고 하다가 의자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엉덩이 쪽을 심하게 부딪쳤습니다. 당시 좀 아프기는 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누워있으면 낫겠지’ 하는 마음으로 쉬었습니다. 그런데 낫기는커녕 통증은 더욱 심해졌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밤이 되니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둘이 살고 있습니다. 아들 하나는 미국에, 아들 하나는 일본에, 막내아들은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어서 저를 병원에 데리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119에 신고하여 구급차의 도움을 받아 인근 정형외과 의원을 방문했습니다. 그 정형외과 의원에서 사진을 찍어본 결과 제 엉덩이뼈가 부러졌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119대가 데려다 준 동네 의원에서 수술을 받으려 했지만 아들이 좀 더 알아보겠다고 말렸습니다. 그 결과 아들이 알아보고 소개해 준 병원이 서울의료원이었습니다. 입원해 있던 동네병원에서 서울의료원으로 또 다시 119를 타고 갔는데, 당시에는 토요일이어서 응급실로 가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형외과 입원 수속은 일사천리로 잘 이루어졌고, 저는 당일 바로 정형외과 입원 병실에 입원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몸과 마음을

안심시켜준 서울의료원

입원하자마자 서울의료원의 세 가지에 놀라고 만족했습니다. 첫째, 보험이 되는 다인

병실이었는데도 병실이 깨끗하고 쾌적했습니다. 둘째, 아들 둘은 외국에 있고, 막내아들 내외는 생업에 바쁘고 아내는 좋지 않은 무릎 때문에 거동이 힘들어 간병은 어쩌나 하는 걱정이 매우 컸는데, 서울의료원 안심병동에서는 ‘간병’이 필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보호자들은 오지 않아도 되니 걱정 말라고 안심시켜 주는 간호사들의 말에 더욱 신뢰가 있었습니다. 셋째, 입원하자마자 수술 스케줄이 바로 잡혀서 월요일에 바로 수술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술 후 3~4일이 지나자 바로 움직일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회복되고 경과가 좋으냐고 놀랄 정도로 수술 경과가 좋았습니다.

퇴원할 때 보니 병원비도 비싸지 않았습니다. 입원해서 수술까지 했고 간병까지 받아 병원비 걱정이 많았는데, 의외로 병원비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울의료원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병원으로 서울시에서 일부 지원을 받아 환자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애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도 수술 경과가 매우 좋아 지금은 가벼운 운동을 하며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서울의료원은 시설과 장비도 좋고, 주변 경관도 좋으며, 의료진의 실력도 최고입니다. 입원 환자 보호자 입장에서는 간병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병원비가 비싸지 않습니다. 의료진의 실력은 대학병원급인데 대학병원만큼 비싼 진료비를 받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일석삼조를 거둘 수 있는 병원입니다.

간병인이 필요 없는 안심병원 ‘포괄간호서비스병원’

서울의료원은 ‘포괄간호서비스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괄간호서비스병원은 기존 ‘환자안심병원’이라는 이름으로 서울의료원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하였으며 2015년 3월 1일부터 포괄간호서비스 제도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로 이루어진 팀이 간호·간병 서비스를 24시간 담당환자를 전담하기 때문에 간병인이나 보호자가 직접 간병하지 않고도 간병비 부담 없이 안심하며 입원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다음 뉴스펀딩에 연재된 '커피 타는 메르스 간호사' 프로젝트로 서울의료원 메르스 전문격리병동 이야기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커피 타는 메르스 간호사'는 총 5화로 구성되어있으며 아래 URL을 통해 전문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펀딩 URL : <http://m.newsfund.media.daum.net/project/233>)



서울의료원, 50여 일간의 메르스

전문병동 이야기



서울의료원 본관에서 보이는 전문격리병동.
메르스 태풍을 안전하게 막아낸 격리병동이 평온한 모습으로 자리잡고 있다.



메르스 격리병실의 모습, 레벨D 방호복을 착용한 간호사가 환자를 살피고 있다.

● “당신이 메르스 격리병동에 입원 하게 된다면?”

5월 26일, 서울의료원은 메르스 첫 확진 환자 입원을 시작으로 23명의 확진환자와 11 명의 의심환자를 진료하였다. 첫 환자가 발생한 날부터 마지막 환자가 퇴원하기까지 50여 일 간의 서울의료원 메르스 전문 격리병동에는 외부와 격리된 채 메르스라는 생소한 바이러스와 싸우며 혼자만의 적막함을 견뎌낸 환자와 그들과 함께 격리되어 사투를 벌인 의료진들이 있었다.

이처럼 일반인들이 가까이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출입이 철저히 금지된 메르스 전문격

리병동에서 벌어지는 생생한 이야기를 담아 보았다.

메르스와의 사투 현장: 간호사와의 인터뷰

● “메르스로 격리되신 환자분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CCTV를 통해서 환자분들이 벽을 응시하고 있거나 서성거리는 모습을 볼 때면 참 안스럽죠. 병실 바깥으로 나오시지를 못하니깐요. 그런 환자분들에게 저희가 특별히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도 될 수 있는 데로 자주 전화 통화하고 말 걸어 드리고 해요. 식사를 가지고 들어

갈 때면 한 입 더 드실 수 있게 곁에서 지켜드리기도 합니다.

● “격리병동이라 낯서실 것 같은데 환자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2층 병동은 대체로 병세가 안 좋은 분들이 계시기는 한데 그중에 호전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 중에는 입맛을 잃으신 분들이 많은데 커피 한잔 마시고 싶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라면도 생각난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증세나 병의 위중함에 따라 다르겠지만 입맛 없고 할 때 이왕이면 잘 드시는 것이 회복이 빠를 것이라고 생각하거

든요. 밥을 드시는 것이 더 좋겠지만 밥만 드시기 불편하다고 하셔서 야식으로 컵라면을 드린다는지 원하시면 커피를 드린다는지 했더니 환자분들이 굉장히 잘 드시고 좋아하더라고요. 물론 병원식 이외의 취식은 전담 의사선생님들께서 각 환자분들의 병세와 상태를 확인해 가능여부에 대한 판단과 적정량의 권고를 따르고 있는데 드리지 못하는 분들께는 미안한 마음이 크게 듭니다.

원래는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드시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데 입맛이 없을 때는 못 드시더라고요. 그러던 중 거의 회복이 다 되어 가시던 어떤 환자분이 “컵라면 하

나만 먹으면 정말 기운을 차릴 수 있을 것 같은데..”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전문의 과장님께 말씀드렸더니 과장님도 환자분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신 후 그 환자분의 상태라면 그렇게 해서 입맛을 찾는 것이 더 좋다고 하셔서 대접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컵라면을 드시면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저희도 식사하고 나면 일상적으로 커피 한 잔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상태가 많이 호전되어 커피를 드셔도 무방한 분들에게 커피를 한 잔 드려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문의 과장님께 환자분들의 상태를 확인받아가며 환자분들께 여쭙보고

대접해드렸더니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전에는 커피나 컵라면을 드릴 생각도 못했었는데 계속 격리병동에서 함께 지내게 되니 그런 생각이 들어 한번 드실 건지 여쭙봤더니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보통 환자분들께 약을 드셔야 한다고 말씀드리면 천천히 일어나시는데, 커피를 드린다고 갔더니 진짜 0.1초 만에 일어나시는 거예요. 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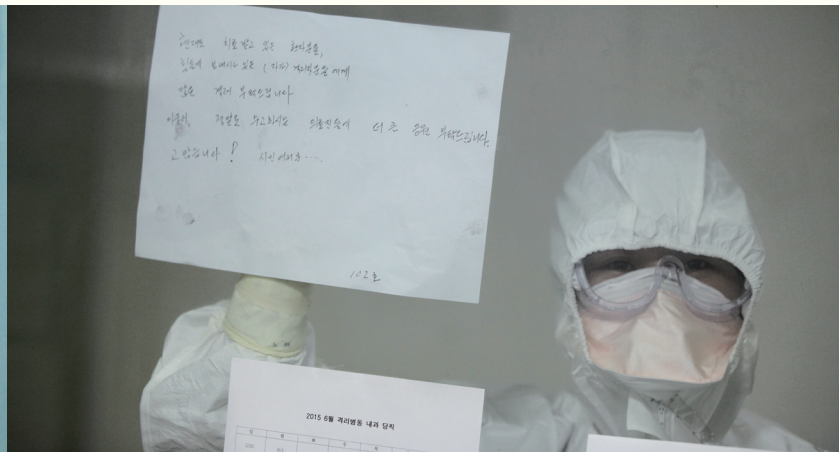
그럴 땐 “이분이 전날 시무룩해 계시던 그분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 꼭 커피든 아니든 환자분이 정말 필요한 것을 해 드리니 너무 좋아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병동 근무 시 방호복과 보호안경, N95마스크를 착용하면 얼굴에 자국이 종일 남아있기도 한다.



외부와 음압설비로 차단된 물품이동 통로(Pass Box)를 통해 환자에게 전해줄 커피를 전달받고 있는 격리병동 간호사. Pass Box는 격리실 안쪽과 바깥쪽에 문이 있어 각각 여닫게 되어있으며 공기의 흐름은 항상 격리실로 흐르게 해 공기 중 바이러스가 외부로 나오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메르스 격리 전문병실에 입원해 치료받고 있는 확진환자께서 보내주신 메시지
현재도 치료받고 있는 환자분들, 힘들게 보내시고 있을 (자기)격리자분들 에게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정말로 수고하시는 의료진들에 더 큰 응원 부탁드립니다.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시민 여러분...

● “환자분들이 만나는 사람이라곤 의료진뿐인데 답답해하실 것 같아요”

여기 계신 환자분들은 일상생활을 못하고 갇혀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TV를 볼 수는 있지만 격리되어 있고 원하는 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해드릴 수 있는 게 뭔지를 잘 알아내고 도와드려 환자분들이 편하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특히 일반 병동에서는 건물 밖에 나가서 산책도 할 수 있는데 여기는 개인병실에서 나갈 수 없잖아요. 환자분들이 다리가 불편하거나 움직일 수 없어서 못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가족들과 떨어져 있다 보니 힘드시겠지만 우선은 이렇게 갇혀 있는 게 제일 불편하다고 해야 하나요. 그런데서 제일 불편함을 느끼시죠.

퇴원하신 분 중에 활달한 남자분이 계셨어요. 저희가 그분 병실에 들어갈 때마다 나오지 못할 정도로 말씀 나누기를 좋아하셨어요. 너무 심심하고 대화할 상대가 없잖아요. 그리고 연세 있으시고 말씀하시기가 좋아하는 분들은 자기 하고 더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그럴 때면 그냥

병실을 나서기가 힘들어요.

진짜 기억에 남았던 일은 어떤 여성 환자 분이 남편 분하고 통화하고 있는 상황에 간호사께서 커피를 가져다 드렸나 봐요. 그때 마침 통화하던 남편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아, 방금 천사가 왔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땐 제가 그 자리에서 들었던 것처럼 정말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저희가 “정말 환자분들께 친절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신경써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더구나 그분 같은 경우에는 상태가 안 좋으셨다가 치료를 통해 상태가 호전되어 오늘 퇴원하셨거든요. 퇴원하실 때 병동 현관 앞까지 모셔다 드리는데 마중 나오신 보호자와 지인분들께서 같이 사진을 찍자고 해 함께 사진도 찍었어요.

그때는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동안 격리병동이 아닌 중환자실에서 많은 분들을 퇴원시켜왔지만 이곳에서 병세가 호전되어 나가실 때 더욱 보람도 크고 마음이 뿌듯한 것 같아요. 제가 이곳에서 퇴원시켜드린 것은 처음이라서 그런 건지 몰라도 격리병동에서 퇴원하시는 분들을 볼 때면 정말 기쁩니다.

● “격리병동에서 의료진으로 근무하시면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격리병동에서 일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10kg에 달하는 방호복을 입고 격리병실에서 1~2시간 간호업무 수행하는 것이예요. 방호복을 입자마자 5분 정도만 지나면 숨쉬기도 힘들고 땀을 많이 흘리는데 그럼 탈수 현상으로 갈증이 많이 납니다. 방호복을 입으면 물을 마실 수가 없으니 격리병동 밖으로 나와 물을 마시면 생수 한통을 다 들이키게 됩니다. 간호부장님께서서는 격리병동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에게 ‘탈수현상이 심하니까 매일 2L 이상의 물을 마셔야 쓰러지지 않을 수 있다’며 의무적으로 마시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루 12시간 근무를 해보니 평소에 물을 잘 안마시던 저도 2L 정도는 그냥 마실 수밖에 없더라고요.

또 한 가지 어려운 점은 얼굴을 꼭 누르는 N95 마스크 때문에 입 주변으로 마스크 자국이 심하게 남고 오래가요. 물론 일하면서 생기는 것이니까 저는 괜찮은데 자국 때문에 주변에서 이상하게 볼까봐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야간 근무를 하고 아침에 퇴근할 때는 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답답해도 일회용 마스크를 쓸 수밖에 없게 되

라고요. 격리병동에서 외부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식사는 의료원내 영양실 직원분들이 직접 만들어 가져다주시는 도시락을 먹고 있어요. 식사시간은 평소와 같지만 환자분 상태에 따라 한 없이 늦어질 때가 있죠. 한 번은 저녁시간에 환자상태가 안 좋아져서 환자 두 분을 동시에 기관삽관을 해드려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저희가 보통 오후 5시경에 저녁식사를 하는데 환자분 기관삽관 처치를 다 하고 나왔더니 밤 10시더라고요. 그때는 손도 너무 떨리고 힘들어서 도저히 밥이 넘여가지 않았습니

다. 개인적으로 힘든 점은 가족이예요. 지금 격리병동에서 근무하는 것을 남편에게만 말해서 남편만 알고 있어요. 메르스가 발생한 지 약 한 달 정도 됐으니까 남편하고 각방 쓰지도 한 달째네요. 가족이랑 떨어져 지내야 해서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듭니다.

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가면 나중에 제가 다니는 동선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마트도 못가서 집에 반찬이 없어요. 가족들도 잘 못 챙겨 먹고 미안하죠. 같이 일하는 동료간호사들 모두 다 집에다 말 못하고 저 같이 생활해요. 스스로 자가격리하는 거죠. 이런 힘든 일은 다른 의료진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메르스가 크게 와 닿진 않았지만 발생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병원에서 격리환자를 치료하기 시작하고 의료진이 감염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또 실제 사망하시는 분들도 옆에서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두려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하지만 지금의 메르스 사태가 아니더라도 의료진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환자를 돌보는 것은 숙명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격리병동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거절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격리병동에서 근무하기 이전보다 더 힘들다는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다만 조금 특수한 상황 때문에 몸이 지쳐갈 뿐이라는 느낌입니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한 마디만 주세요.”

일이 힘든 것 보다는 빨리 메르스가 끝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환자분들이나 지켜보는 시민들 마음도 그러시겠지만 모두가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잖아요. 저희도 야간근무를 하면서 동료들끼리 “빨리 끝나고, 아 그때 그랬었지”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자주 얘기해요.

66

라디오라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굉장히 시간을 보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나가서 맛있는 거 먹는 게 제일
하고 싶죠. 그래도 자유롭게.
이렇게 자유가 귀중한지
몰랐어요. 가족이 제일 생각이
나고요. 가족이... 아내가 제일
생각이 나죠. 어머님하고,
미안하고 완치되면 더 잘해야죠.
빛을 쬔으니까요.

- 서울의료원 메르스 전문 음압병실 102호에서 -

99



서울의료원이 있어

고맙습니다!

- **홍보팀 지승준** 안녕하세요. 드라마 촬영에 바쁘신데 격려메시지 전달과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배우 이정길**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메르스 사태 해결의 중심에 의료진 여러분이 있었고 특히나 서울의료원과 같은 공공병원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보여주신 노력에 고마운 마음 전합니다.
- **홍보팀 지승준** 서울의료원과 같은 서울시 산하 병원이 서울에 13곳 운영 중입니다. 공공병원을 이용하신 경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배우 이정길** 진료를 받기 위해서 직접 공공병원을 방문한 적은 없지만, 서울의료원이 강남에 위치해 있을 때 지인들이 서울의료원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방문은 여러 차례 했었죠.
- **홍보팀 지승준** 지인 분들은 저희 병원에 만족하셨나요?
- **배우 이정길** 물론이죠. 일단 의료수준이 민간 대학병원에 절대 떨어지지 않아 믿음이 가고 의사, 간호사와 같이 의료원에 종사하는 분들이 모두 내 가족처럼 보살피는 모습에 감동받았다고 합니다.

국민배우 이정길님을 만나다

메르스와의 사투 속에서 보여주신 희생과 헌신 잊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의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세요!

특별한 만남이 있던 지난 7월 15일(수), 며칠간 계속된 비와 흐린 날씨가 맑게 갠 하늘로 변했다. 설레는 마음에 병원 차량을 타고 이정길님을 만나러 일산 MBC드림센터로 향했다. 평소 친분이 있던 방송관계자를 통해 메르스 극복에 힘쓰고 있는 서울의료원 직원들을 격려해주실 분을 찾아 나서던 중 국민배우 이정길님이 선뜻 응해주셨다. 어려운 자리임에도 기쁜 마음으로 고생하는 서울의료원 직원들을 격려하고 인터뷰 해주신 이정길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홍보팀 지승준** 잘 아시겠지만, 메르스 사태를 극복하는데 서울의료원과 같은 공공병원의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최전선에서 싸웠던 직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 **배우 이정길** 국가적으로 큰 혼란이 초기에 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메르스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선뜻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직원 여러분들이 자원하여 메르스 최전선에 투입되는 모습을 언론을 통해 접할 때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 **홍보팀 지승준** 오늘 인터뷰 중에 하지 못한 말씀이 있다면 들려주십시오.
- **배우 이정길** 항상 건강을 위해 가까이 해야 할 곳이 병원입니다. 당장 몸이 불편하지 않더라도 건강한 삶을 유지하려면 미리 미리 건강을 챙겨야 하고요. 서울시를 대표하는 공공병원인 서울의료원은 세계적인 의료수준을 적절한 가격에 제공하고 있으니 개인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늘 가까이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메르스 사태 극복에 힘쓰신 서울의료원 직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의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십시오.

미증유(未曾有)의 메르스 사태가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지난 69일. 아픈 상처를 남겼지만 반대로 이런 위기상황 탓에 공공의료의 존재가 역설적으로 증명됐다. 초기 위기대응에 총체적 난맥상을 보이며 민간병원이 외면할 때 서울의료원과 같은 공공의료기관이 모든 책임과 부담을 지고 전면에 서 싸웠던 것이다. 유명 대학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에서 서울의료원으로 이송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원했던 의료진과 이들을 지원해줬던 관리직 등 직원 모두의 희생과 헌신이 있어 메르스라는 생소한 병마를 이겨낼 수 있었다.

2011년 3월 25일. 중랑구 신내동에서의 첫 진료가 시작되던 날. "서울의료원이 우리 지역으로 이전해서 좋습니다. 그리고 안심이 됩니다."라는 지역주민의 말씀대로 공공의료기관이 이번 메르스 사태 극복에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 공공의료에 몸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자랑스럽다.

66

서울시를 대표하는
공공병원, 서울의료원을
개인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늘 가까이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99



이정길 님
1963년 국단 실험극장에서 '사할린스크의 하늘과 땅'에 출연하며 연극배우로 첫 데뷔했고 1965년 서울중앙방송(현 KBS) 공채 탤런트 5기로 입문해 별에서 온 그대(2014), 아이리스(2013), 하얀거탑(2007), 제3공화국(1993), 조선왕조 500년(1983) 등 120여 편에 달하는 작품 활동을 통해 지난 50년간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국민배우이다.



고맙습니다! 서울의료원 직원 여러분,

메르스와의 사투 속에서 보여주신
희생과 헌신 잊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의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십시오.

배우 『이정길』
서울의료원 직원 여러분
2015. 7. 16

1 2 3 4 5 6 7

사진 왼쪽부터)조성자 간호교육팀장, 이인덕
간호부장, 박인희 간호사, 배우 이정길,
조동희 외과과장, 최란 간호사, 홍보팀 지승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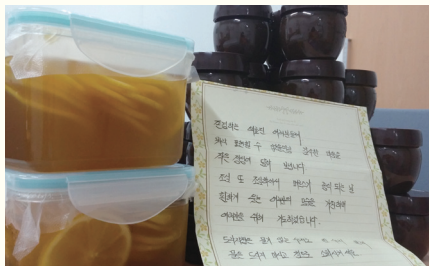


도라지청과 레몬청을 받고 반가워하고 있는 격리병동 의료진. 이 외에도 많은 물품들이 지원되어 의료진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메르스를 물리치는 백신이 없다고요?”

여전히 예방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메르스지만 다행히도 많은 분들이 메르스를 극복하고 소중한 일상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이들이 메르스를 치료할 수 있게 해준 치료제는 무엇일까요? 메르스와의 힘든 사투를 벌이던 과정 중에 서울의료원은 생각지 못한 치료제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께 서울의료원이 발견한 메르스 치료제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말리 강원도 철원에서 장선혜 님께서 직접 만들어 보내주신 도라지 청

● 어떻게 도라지청을 보내주시게 되었나요?

“방송에서 의료진들이 겪는 고통을 보면서 진짜 마음이 아팠었어요. 집에도 못 들어가시고 아이들도 고통을 받고... 그러던 와중에 ‘뭔가 해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뉴스펀딩을 보게 되었어요. 환자들에게 커피 타드리고... 그거부터 다 봤죠. 그 내용을 읽으면서 정말, 내가 만약 의료진이었다라면 어떻게 했었을까? 제가 과연 그렇게 목숨을 담보로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너무 감사하다.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죠. 목숨을 담보로 의료 행위를 하셨으니까. 서울의료원으로 연락하게 되었어요. 기본 적은 없어도 신내동에 다니면서 의료원의 존재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또 감사하게 받아주셔서 보내게 되었어요.”

“직접 만든 것들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의료진들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제가 사서 한다고 했으면 이야기가 다를 수 있을 텐데... ‘탈수로 인해서 많이 지쳐계셨을 때 기분도 좋게 해 드리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지요. 방호복 입고 근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저런 분들에게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하나의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분들 상황이 정말 힘들었잖아요. 자녀 등교를 거부하는 상황도 있었고 진짜 안타까웠어요. 저도 아이를 키우지만 만일 제 아이가 그런 상황에서 배척을 당하고 그랬으면... 그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죄송해지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모두 그런 생각을 갖는 게 아니고 감사해하고 있다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전달해 드리고 싶었어요.”

●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정성을 모아 응원하고 있는데 느낌이 어떠신지요?

서울의료원 김미혜 파트장 “우리는 당연한 일을 하는데 보내주신 분이 우리의 건강을 위해 응원해 주시는 것에 감사함을 느꼈죠. 처음에는 도라지청이라고 해서 의아했었어요. 상자를 열어봤는데 담겨있는 용기가 향아리처럼 생겼잖아요. 되게 아담하고 예쁘게 생겼어요. 냉장고에 일렬로 째 진열해놓고 출근하고 중간에

체력이 소진될 때쯤에 한 손갈씩 먹으면서 일했어요. 다들 같이 타서 먹었는데, 정말 잘 먹었어요.”

“우리가 병실 한번 갔다 오면 맘으로 흠뻑 젖잖아요. 저는 원래 야식 같은 거 잘 안 먹는데 체력이 좀 소진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런 건강식들을 먹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금방 없어졌어요. 자주 먹어서, 저희가 인원이 좀 많았잖아요. 인원이 많으니까 한 2~3일 만에 없어지더라고요. (^_^)”

“그리고 그분이 편지를 써주셨더라고요. 편지를 저희 회의 공간 벽에다가 붙여놓고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저희를 많이 생각 하시는구나’ 하면서 힘내고 그랬어요. 그리고 중·고등 학생들이 위문편지를 많이 보냈더라고요. 그것도 같이 붙여놨었어요.”

“잠실여고에서도 비타민과 손편지를 학생들이 주셨는데 감동적이었어요. 주변에 있는 학교도 아니고 저희와 전혀 상관없는 지역에서 서울의료원을 생각하고 보내주시니까 정말 감동이었어요.”

서울의료원 감염관리실장 최재필 과장

“처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메르스를 꺼리고 그러셨는데 이렇게 생각을 바꿔주셔서 기분은 좋으면서도 한편으로 이렇게 보내주신 정성을 받아도 되나 했었죠.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해 너무 많은 성원과 걱정을 해주시는 것 같다는 걸 느꼈습니다. 사실 위문은 큰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해주는 거잖아요. 제가 그 정도로 큰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하고 있는데 ‘이렇게 위문품을 보내주시고 많은 걱정을 해주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우리 병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의료진한테 힘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환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바라고 있구나.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저희들 얼굴도 모르실텐데 힘을 내라고 보내주신 것들에 대해서 이곳에서 일하는 의료진과 지원업무에 매진하는 분들 모두, 그리고 환자분들도 모두 과분할 정도로 응원의 힘을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격리병동 음압병실 간호사에게 금방 도착한 선물을 알려주고 있다





삼복더위를 물리칠 한여름 대표 보양식, 삼계탕



삼계탕은 인삼의 각종
약리작용과 찹쌀, 밤, 대추
등이 들어간 균형 잡힌
영양식이다.

성큼 다가온 여름, 뜨거운 태양과 장마로 ‘찌는 듯한 무더위’를 실감하게 하는 요즘이다. 더워진 계절만큼이나 길어진 태양 때문에 활동량이 많아지게 되는데 여기에 습하고 더운 날씨가 더해져 체력소모와 함께 스트레스가 쌓이기 쉽다. 또한 지속되는 불볕더위로 인해 입맛이 없어지고 잠을 쉽게 이룰 수 없어 피로가 가중되고 영양부족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예로부터 여름철 지친 몸의 원기를 회복하기 위해 복날마다 갖가지 영양식으로 건강을 지켰다. 그 중 여름철 영양식으로는 삼계탕을 빼놓을 수가 없다. ‘복날만 되면 우리나라의 닭들이 모두 사라진다’라는 우스갯말이 있을 정도로 삼계탕은 국민의 대표 보양식으로 인기가 높다. 우리 고유의 전통음식 삼계탕은 인삼의 각종 약리작용과 찹쌀, 밤, 대추 등이 들어간 균형 잡힌 영양식으로 ‘이열치열’에 특효가 있어 삼복더위에 반드시 찾는 음식이다.

그렇다면 여름철 보양식은 무조건 건강에 좋을까? 예전에는 영양소 섭취가 부족했기 때문에 여름 보양식이 필요했지만, 영양과잉 시대인 현대에는 보양식을 지나치게 탐닉하면 도리어 비만, 동맥경화, 당뇨병 등 만성퇴행성 성인병을 유발 할 수 있으므로 고지방, 고콜레스테롤 음식을 주의해야 한다. 이에 고단백의 보양식으로 지친 기력을 되살릴 수 있는 삼계탕을 소개하고자 한다.

TIP



전복삼계탕

주재료 닭고기 1마리(800g), 전복 2개(60g), 속재료(찹쌀(불린 찹쌀) 1/2컵(80g), 황기 20g, 대추 3개(9g), 당귀 약간)

부재료 동굴레 약간, 헛개나무 약간, 물 1컵(2L), 마늘(통마늘) 6쪽(30g), 대파 10cm(20g, 국물용), 대파 10cm(20g), 소금(소금 약간)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계탕 섭취가 많아지는 초복을 앞두고 지난 5년간 캄필로박터균에 의해 발생한 식중독 총 22건을 월별로 분석한 결과, 닭을 많이 섭취하는 7월에 8건(36.4%)으로 가장 많았다고 한다. 따라서 삼계탕을 조리할 때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주의할 점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한다.

- 닭이나 육류를 구입할 때 냉장 또는 냉동보관된 것을 확인 후 구입한다.
- 장바구니에 담기 전 잘 밀봉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냉장고에 보관 시에도 밀폐된 용기를 사용하여 다른 음식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보관한다.
- 닭이나 기타 육류를 손질할 때는 육류 전용 칼과 도마를 사용한다.
- 육류를 손질한 후에는 반드시 비누로 손을 씻고 다른 식재료 취급한다.
- 육류와 닿았던 기구와 용기는 꼼꼼히 세척하고 소독한다.
- 조리 시에는 속까지 푹 익도록 충분히 가열한다.
- 조리 후에는 가급적 빨리 섭취하도록 하고, 바로 먹지 못할 경우에는 식힌 후 바로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한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요리과정

- ① 전복은 조리용 솔로 문질러 깨끗이 닦은 후 흐르는 물에 씻는다. 껍데기와 살 사이에 손가락을 넣고 살을 떼어낸다. 닭은 날개 첫마디와 공지를 자르고 목 겹질 안쪽의 기름을 제거하고 뱃속에 손을 넣어 기름 덩어리를 제거한 후 깨끗이 씻는다. 닭 뱃속에 불린 찹쌀, 밤, 대추, 인삼, 황기를 채워 넣는다.
- ② 닭의 목이 풀어지지 않게 꼬치를 끼워 고정한다. 닭의 다리 한쪽에 구멍을 내어 서로 엇갈리게 다리를 꼬아 구멍에 끼워 풀어지지 않게 한다. 냄비에 닭, 전복, 동굴레, 헛개나무, 마늘, 대파, 물을 넣고 뚜껑을 닫는다. 센 불에서 바글바글 끓어오르면 중간 불로 줄여 한 시간 가량 끓인다.
- ③ 떠오르는 기름을 제거하고 송송 썬 파를 올린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전복 삼계탕 만드는 법(국립TV)



태허! 조국을 너무나 사랑했던 불꽃!

중고교 학생 시절 역사 시간에 배웠던 일제강점기 시대의 여러 위인들 중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무척 안타까운 분으로 기억된다. 평생을 미국에서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에서 헌신적인 마음으로 오직 독립운동에 매진하셨던 선생님께서는 미처 독립의 기쁨을 느껴보지 못한 채 운명하셨으니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 그런데 놀라운 점은 생전에 도산 선생님께서 각별히 아끼셨던 제자가 바로 이 곳 중랑에 계시다는 것이다.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이자 외과의사, 태허 유상규

유상규(劉相奎, 호는 태허(太虛)) 선생님의 아들과 손자들은 「‘도산 안창호의 길을 간 외과의사’ 태허 유상규」라는 책을 통하여 아버지이면서 할아버지인 선생님께서 거니셨던 길의 발자취를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당신이 살아가신 39년의 짧은 생애를 따뜻하고도 진솔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은 얼핏 보기에는 한 사람의 가족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당대의 크고 작은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하고 있어서 마치 한 편의 역사서를 읽는 듯하면서 한편으로는 일종의 평전(評傳)을 접하는 느낌도 든다. 태허 선생님은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이자 ‘외과의사’로서 당시 대중 의료보전에 일생을 바치신 분이다. 우리는 여기서 결코 범상치 않은 사실을 알게 된다. 태허 선생님께서는 경성의학전문학교(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전신) 3학년이던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운동의 주도자 중의 한 사람으로 당당히 일제에 항거하시다가 군경의 체포를 피하여 부득이 중국의 상해로 망명하게 된다. 그 곳에서 평소 아버지처럼 존경하던 도산 선생님과 조우하면서 ‘흥사단’의 일원이 되어 그 분의 참모로서 비서로서 때로는 아들 같은 존재로 활동하게 된다.



귀국 후 진료와 의학연구, 계몽활동에 매진

그러나 도산 선생님의 뜻과는 다르게 독립운동을 하던 다른 계파의 지도자들 간에 투쟁 노선의 차이로 인하여 결별하게 되자, 도산 선생님은 태허 선생님에게 고국으로 돌아가 미처 마치지 못한 의학을 마무리하고 ‘의사(醫師)’로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해주고 나아가 독립 후 건국의 일군이 되어줄 것을 권고한다. 그 당시 태허 선생님은 그 끝을 알 수 없는 답답함과 막막함으로 얼마나 괴로웠을까? 태허 선생님은 조선 민족의 고통을 진정으로 느껴보겠다는 일념으로 일본으로 건너갔는데 막일을 하면서 조선인으로서 겪어야할 온갖 설움과 차별을 경험하고 심지어 일본 경찰에 의하여 불순한 사상범(思想犯)으로 체포되어 실형 선고 받고 감옥살이를 하게 된다. 출옥 후 20대 후반의 나이에—당시에는 ‘만학도(晩學徒)’라 불렸을 듯—귀국하여 어렵게 다시 대학에 복학하였고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외과의사로서 약리학교실의 연구자로서 진료와 의학 연구에 매진했다. 나아가 도산 선생님의 뜻을 이어받아 ‘수양동우회’, ‘동광사’에 참여하면서 민족의 애환을 달래주고 계몽 활동에 심혈을 기울인다. 그 분의 열정은 단지 학문이나 직업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훗날 부인이 되신 분에 대한 진실하고 절절한 사랑의 표현에서 잘 드러난다. 동료와 인간에 대한 그 분의 무한한 사랑은 백인제 박사(백병원 설립자)를 ‘중매’하여 ‘결혼’에 이르게 되었는데 어디선가 누가 말했듯이 ‘사람 낚는 어부’라는 별칭을 드러도 손색이 없지 않을까 한다.



후손들에게 전해지는 태허 선생님의 정신

‘천재는 요절한다!’라는 속담 같지 않은 말을 들어 본 적이 있는데, 혹시나 태허 선생님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은 아닐까? 각고의 노력 끝에 의학박사 학위 논문이 통과하였고, 학교를 떠나 개원하여 외과 전문의사로서 임상에서 환자들을 돌보려 하셨던 원대한 꿈은 어처구니없게도 자신이 수술한 환자로부터 감염이 된 후 속수무책으로 이렇다 할 치료도 받지 못하시게 되며 물거품이 되어버린다.

마지막 숨을 넘기는 긴박한 순간에 태허 선생님은 자신의 육체를 의학 발전을 위해 기증하겠다는 말씀을 남기시고 홀연히 떠나신다. 선생님의 임종 소식은 고향인 평안북도 강계에서 황급히 열차를 타고 오던 가족들에게 한 통의 전보로 전해지게 된다. 당시 4살의 꼬마이던 책의 저자는 부친의 모습을 거의 기억하지 못하지만 태허 선생님의 정신은 손자들과 절친한 동료였던 백인제 박사의 후손들을 통하여 현재에도 이어져 오고 있다.

얼마 후 도산 선생님께서는 운명하시면서 자신보다 먼저 간 태허 선생님 곁에 묻어 달라고 유언하시어 중랑구에 있는 ‘망우리 공동묘지’에서 두 분은 해후를 하게 된다. 그 후 강남구 일대에 ‘도산공원’이 조성되어 도산 선생님의 유해가 이장됨으로써 현재는 비록 두 분의 ‘육신’이 떨어져 계시지만 저자들의 바람처럼 두 분의 ‘영혼’은 하나가 되어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영화 ‘구글 베이비’를 보고

영화 ‘구글 베이비’에서는 인도에서 고액의 대가를 받고 대리모 역할을 해주는 여성들과 이를 중개하는 병원이 등장한다. 대가 없이 대리모를 자처하는 사람을 구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대리모를 요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인도 등지에서 대리모와 아기를 얻는다. 현재 한국에서 대리모를 구하는 것은 대가를 주고받지 않는 한은 불법이 아니라고 한다. 정확히는 불법 여부를 떠나 명확한 관련 법규가 없는 실정이다.



수많은 절망을 이겨내며 도전하는 ‘난임’ 부부들

대리모를 고려할 수 있을 법한 매우 다양한 경우를 보았다. 여러 번 시술을 거쳤음에도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난임 환자, 반복되는 유산 또는 조산으로 아이들이 장애를 갖고 삶에 지쳐있는 부부, 선천적으로 자궁이 없어 아기를 출산할 수 없는 여성, 암 질환에 의해 자궁이나 난소를 적출할 수밖에 없었던 여성 등 적어도 몸매 관리를 위한 가벼운 마음 이상의 많은 경우들이 있다. 세상에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없으랴. 1978년 최초의 시험관 아기가 태어난 이후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약 500만 명의 시험관 아기가 출생하기에 이르렀다. 한국에서도 1985년 서울대에서 최초의 시험관 아기가 출생하였다.

난임 부부의 치료 과정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불임이라는 표현은 함부로 쓰면 안돼. 난임 이라고 표현해야 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 망치로 머리를 친 듯 번쩍하고 급작스런 깨달음이 떠오르는 순간이었다. 대한민국처럼 가문과 혈연을 중요시 여기는 국가에서 자괴감을 극복하고 병원을 찾아야 한다. 이런 일을 겪은 적도 있다. 초경이 없어 선천적으로 자궁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환자였다. 사랑도 하고 결혼도 하였으나 아이가 없던 환자였다. 이미 폐경기인 어머니가 대리모 역할을 자처하였다.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호르몬제를 복용하면서 딸의 난자를 공여 받아 무사히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였다. 아기를 낳고 외래를 방문한 날 너무나 행복해 보이던 두 모녀의 모습을 잊을 수 없다. 상당히 잘 해결된 케이스이다.

영화에서는 간절히 임신을 원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다루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 장면 장면이 언뜻 비인간적이고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마치 게임 캐릭터를 고르듯 만면에 미소를 띄우고 컴퓨터 화면을 통해 눈동자 색깔, 머리 색깔, 인종, 목소리 등을 기반으로 남자 혹은 여자 공여자를 고를 때, 출산 후 아기에 대한 대리모들의 복잡한 마음도 잠시, 고민하다가도 앞으로 얻게 될 주거지를 구경하고는 금세 미소 짓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을



GOOGLE BABY

Google Baby(2009)
세계화 시대에 등장한 3대륙에 걸친 아기 생산 방식. 이스라엘 기업가 도론은 자신을 베이비 프로듀서라 소개한다. 그의 고객이 유전자를 선택하고 돈을 내면, 온라인으로 구입된 정자와 난자는 수정되어 인도 대리모의 자궁에 착상된다. 첨단 기술의 발달은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원하면 부모로 만들어 준다. 필요한 것은 신용카드뿐이다.

때, 경제적인 득을 얻기 위해서는 본인의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의사의 설명을 듣고도 크게 표정의 변화가 없는 인도 여성과 그의 남편, 임신 중에는 병원을 떠나지 못해 친자식과 남편의 방문이 전부였던 여성, 아무리 아이를 간절히 원했다고는 하나 대리모의 정성과 산고를 전혀 알지 못한 채 미소를 띠고 아이를 받아 드는 부부를 보았을 때! 대리모도 사람이다. 인공자궁의 역할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임신과 출산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일련의 과정이다. 그 어떤 직업도 생명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

이쯤에서 제도 정비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대리모를 구할 수 있는 경우를 철저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영화 ‘구글 베이비’에 등장하는 병원에서도 아이가 한 명 이상 있는 부부, 다른 방법으로 임신이 가능한 부부에게는 시술을 시행하지 않는다고 했다. 충분히 시도해 보지 않은 부부에게도 금해야 한다. 최후의 보루쯤으로 해야 할 것 같다. 현실적인 생각도 하지 않을 수는 없으니 대리모 행위의 대가를 허용할 것인지 허용한다면 어느 수준에서 허용이 되어야 하는지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 같다. 일단 안전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대리모를 지원하는 여성의 자격 요건도 논의해야 한다. 노산, 비만, 기존 질환이 있는 여성의 임신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 시술을 반복했을 때 향후 본인의 임신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으므로 아직 아이가 없는 사람도 제한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 명의 여성이 여러 번 대리모 시술을 겪는 것도 제한해야 할 것이다.

대리모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나 사망에 대한 대비, 임신 중 대리모의 거주와 이동, 임신한 아이가 기형이나 염색체 이상이 있을 경우, 의뢰자가 대리모 의뢰를 취소할 경우, 나아가 출산한 아기에 관한 대리모의 권한, 서로의 신상은 대리모와 의뢰자 간 비밀에 부칠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대리모 출산 허용이 결코 생명 경시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이야기

우리나라는 유럽이나 미국의 병원과 달리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는 순간부터 가족들이 환자를 돌봐야 한다. 그러다보니 환자나 가족들 모두 병원 생활에 지칠 수밖에 없으며 가족들은 병원 내의 감염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가족으로서 몸이 불편한 환자를 병실에 방치할 수도 없어 간병은 오로지 가족들의 몫으로 남아 있다.

장 바티스트 그뢰즈 Jean Baptiste Greuze
프랑스의 화가. 일반 시민생활을 묘사하는 데 힘썼다. 의상, 실크나 레이스 등의 섬세한 질감의 교묘한 표현은 대중적인 생활화가로서의 그의 위치를 굳혔다. 도덕적인 교훈을 주제로 삼아 감정적인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작품으로 격찬을 받았고, 18세기의 대표적인 화가가 되었다.
출처 두산백과

환자를 간병하는 가족들을 그린 그뢰즈의 ‘중풍 환자와 그의 가족’

화면 중앙, 늙은 남자가 안락의자에 앉아 머리는 쿠션에 비스듬히 기대고 발은 발 받침대에 뻗고 누워 있다. 그 옆에 서 있는 남자는 손에 수프 접시와 숟가락을 들고 있다.

남자의 백발의 머리는 늙은 남자를 나타내며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은 남자가 눈을 뜰 기력이 없는 중병 환자라는 것을 나타내며 발 받침대에 놓여 있는 발과 안락의자 기대어 누워 있는 늙은 남자의 자세는 팔다리가 마비된 중풍 환자라는 것을 암시한다.

환자의 옆에 서서 수프 그릇을 들고 있는 남자는 환자의 아들을 나타내며 그가 수프 그릇과 숟가락을 들고 있는 것은 환자에게 수프를 먹으려고 애쓰는 가족의 마음을 의미한다. 아들 어깨에 기대어 있는 여인은 남자의 아내를 나타내며 어깨에 기대어 있는 여자의 자세는 오랜 간병에 지쳐 있는 모습을 암시한다.

화면 오른쪽의 찻잔을 들고 있는 소년은 환자의 손자를 나타내며 찻잔은 홍차를 의미한다. 따라서 홍차는 할아버지가 홍차를 마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것을 손자의 마음을 상징한다. 발 받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있는 젊은 남자는 할아버지가 덮고 있는 담요를 끌어 내리고 있다. 담요는 환자가 추울까봐 걱정하는 손자의 마음을 암시한다.

화면 왼쪽의 의자에 앉아 있는 노파와 책을 들고 있는 젊은 여인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늙은 남자를 바라보고 있다. 노파는 환자의 아내를 나타내며 무릎 위의 옷은 바느질 중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바늘을 쥐고 있는 손이 무릎 위에 얹어져 있는 것은 환자의 상태가 걱정스러워 하던 일을 멈추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책을 들고 있는 젊은 여인 역시 노파와 마찬가지로 책에 손을 얹고 있는 것은 할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을 의미한다.



‘중풍환자와 그의 가족’ 1763년, 캔버스에 유채, 러시아 에르미타주 미술관 소장

에드바르도 뭉크 Edvard Munch

노르웨이의 화가. 심리적이고 감정적인 주제를 강렬하게 다룸으로써 보는 사람에게도 똑같은 감정을 자아내게 하는 그의 기법은 20세기 초 독일 표현주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그의 작품 ‘절규 The Cry’(1893)는 실존의 고통을 형상화한 초상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출처** 브리태니커



‘병든 아이’ 1885~1886년, 캔버스에 유채, 오슬로 국립 미술관 소장

그뢰즈의 이 작품에 인물들 모두 할아버지를 향해 있는데 이는 할아버지를 걱정하는 가족의 애정을 나타낸다. 하지만 쿠션을 가지고 놓고 있는 어린이는 어린이 특유의 장난을 익살스럽게 표현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머리를 바라보고 있는 소년의 얼굴은 철없는 아이지만 할아버지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집안에 환자가 있으면 가족 전체의 근심이 된다. 특히 난치병일 때에는 가족들은 심한 고통과 절망 그리고 좌절에서 헤어 나오지를 못한다. 가족으로서 환자에게 해 줄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간호하는 가족의 고통을 그린 뭉크의 ‘병든 아이’

붉은 머리 소녀가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풍신한 베개에 등을 기대고 앉아 허공을 바라보고 있고 검은 옷을 입은 여인이 소녀의 손을 잡은 채 베개에 얼굴을 묻고 있다. 침대 발치에 있는 탁자에는 약그릇이 놓여 있다. 머리숱이 별로 없는 소녀의 모습과 허공을 바라보는 시선은 아프다는 것을 나타내며 커다란 베개에 몸을 기대고 앉아 있는 모습을 오랫동안 소녀가 오랫동안 앓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소녀의 손을 잡으면서도 베개에 얼굴을 묻고 있는 여인은 아픈 아이의 모습에 절망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소녀와 여인의 검은색 옷은 소녀의 운명을 암시한다.

에드바르도 뭉크(1863~1944)의 이 작품은 어린 시절 경험했던 누이의 죽음을 그린 것이다. 소녀는 뭉크의 누이 소피에서 결핵으로 죽었다. 당시 결핵은 불치병이었다. 간호하는 여인은 뭉크의 이모로서 뭉크가 다섯 살 때 어머니가 결핵으로 죽어 이모가 대신해서 남매를 키웠다.

이 작품은 1885년에서 1886년에 걸쳐 제작된 것으로 죽어 가는 누나를 그린 세 점의 작품 중 하나로 열다섯 살의 누이가 성숙해 보이는 것은 뭉크가 누이가 죽은 지 8년 후에 그때의 기억으로 그렸기 때문이다.

이 작품이 전시회에서 처음 공개되었을 때 동료 화가들 사이에서 마치 드로잉 하듯 대중 그린 것을 전시회에 내놓았다고 비난을 받았다. 당시 노르웨이 화단에서 전통적인 기법으로 그려진 작품만 인정했었다.



라오스 의료봉사활동에서 만난 맑은 눈빛과 반짝거리는 마음들

얼마 전 ‘꽃보다 청춘’에서 라오스에 다녀온 것을 보았다. 혼자만 간직하고 있던 보물을 빼앗긴 것 같은 묘한 질투심이 났다. 라오스는 나한테 그런 곳이다.

‘의료봉사’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희망하시는 분은
sogum718@hanmail.net
(가정의학과 황서는 전공의)로 연락부탁드립니다.

의료봉사활동에서 생애에 처음 의사를 만나는 아이들

처음 라오스 여행 중 우연히 알게 된 의사선생님과 NGO 단체를 통해 라오스 봉사활동에 참여한 것이 벌써 4년째다. 처음 함께 했던 진료현장은 새내기 의사로서 참 인상적인 순간이었다. 바나나 잎으로 지은 조그만 학교 교실 안, 성긴 벽의 틈 사이로 햇빛 알갱이들이 쏟아져 들어온다. 생애 처음 청진기를 대하는 조그만 아이들은 기대와 긴장을 가득 안은 눈망울과 쿵광거리는 심장을 안고 다가온다. 가끔은 겨우 인턴을 마친 경험 없는 의사도 금세 알아차릴 정도의 엄청난 심잡음을 가진 아이나, 뺨 뚫린 고막을 가진 아이들도 있다. 그리고 나는 그들 생애에 처음으로 만난 의사가 된다. 꽤 많은 나라를 여행하면서 의료봉사활동이나 의료사업 현장을 여러 군데 방문했다. 대부분은 큰 병원이 세워져 있거나 수술 장비들을 갖추고 즉각적인 치료를 해주는 방식이다.

그러나 라오스는 달랐다.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신 선생님도 다른 봉사자들처럼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 선생님은 한 곳에 병원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시골에 있는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이동진료나 검진하는 방법을 택했다. 2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지방을 다니면서 간단한 신체계측과 혈압, 당뇨, 소변검사 등 건강 검진을 실시하고, 진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는 혈액검사나 x-ray, 심전도 등 추가적인 검사나 약물 처방 등도 병행하고 있다. 그러다가 이상이 발견된 환자들은 2, 3차 진료기관으로 연결되거나 의료봉사 수술팀이 왔을 때 연결해서 치료받기도 한



다. 더불어 손씻기나 양치질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지역 보건 증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모아진 데이터는 라오스 건강 통계자료로 활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활동들이 인정을 받아 현재는 라오스 정부의 지원 및 KOICA와 MOU를 체결하여 후원 받고 있으며, 2년 전부터 x-ray와 초음파를 실은 진료버스도 함께 다니게 되었다.

우리가 하는 일 역시, 검진과 진료에서 필요한 파트에 인력이 투입되어 힘을 더하는 일이다. 많은 사람이 함께 할 때는 더 큰 마을을 방문할 수 있으며, 특정 전공자가 함께 할 때는 그만큼 다른 치료를 해 줄 수 있다.

의료봉사활동을 통해 건강을 되찾은 아이들

이번 의료봉사활동 때, 한 마을의 진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리앙’을 만났

다. 리앙은 2년 전, 사고로 발목의 뼈까지 노출된 심한 상처를 입고 걷지도 못해서 손수레에 실려 진료를 보러 왔었다. 우리팀과 함께 수도로 온 리앙은 내가 봉사활동을 마치고 떠난 이후로도 한 달 넘게 NGO 사람들과 함께 지내며 시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흉한 상처가 남긴 했지만 건강해졌고 지금은 한 달 된 아이를 가진 열여섯 살짜리 엄마가 되어 있었다. ‘바이터’라는 아이도 다시 만났다. 검진을 통해 발견된 TOF라는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던 열네 살 바이터는 또래보다 훨씬 작은 체구에 혈색 없는 어두운 표정을 하고 있었다. 이 친구는 이후 한국의 한 병원과 연결되어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돌아왔고, 이번에 만났을 때는 같은 사람일까 싶은 정도로 밝고 생기가 넘치는 모습이었다.

이번 검진에서도 8세 아이의 심잡음을 들

었다. VSD(심방중격결손)으로 추정되며, 아이의 주소와 이름을 등록하여 추후 가능한 시기에 추가 검사와 수술을 받게 될 예정이라고 한다. 일 년 중 겨우 며칠, 나는 겨우 청진기 몇 번 대고, 약물 몇 가지 처방했을 뿐이다. 그러나 라오스 사람들과 NGO 단원들 에겐 분명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믿는다. 무엇보다 그 일을 통해 얻는 기쁨과 반짝거리는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 얻은 힐링은 내가 들인 노력이나 시간과 바꿀 수 없을 만큼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제는 혼자 가고 싶지 않다. ‘꽃보다 청춘’을 보고 여행을 떠나는 이들과 라오스를 나누어 가져야 한다면, 나는 ‘의료봉사’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 올해도 겨울이 오기 전 휴가를 낼까 생각 중이다. 그리고 함께 할 사람들을 기대해 본다.

서울특별시 나눔진료봉사단은 의료 취약계층의 질병 예방과 치료를 위해 최소한의 건강안정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눔진료봉사단의 지속적인 활동은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고 의료 취약계층의 질병으로 인한 빈곤을 방지하며, 더 나아가 공공병원으로서 서울의료원의 기틀을 다지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는 삶, 함께 걸어요 서울특별시 나눔진료봉사단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서울역광장에서 무료진료가 있는 날입니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서울역광장에서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나눔진료를 시행합니다. 40여명의 의료진이 의료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접수, 예진, 진료, 투약의 전반적인 과정을 거쳐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건강 관리를 위하여 환자의 진료기록을 차트화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는 본원이나 접근성이 용이한 근처 시립병원으로 연계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지원실적

구분	진료인원	검사인원
3월	655명	7명
4월	632명	3명
5월	673명	2명
합계	1,960명	12명

※ 진료 중 의료진의 판단 하에 검사가 필요하신 분을 대상으로 방사선검사, 심전도검사, 혈액검사를 바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료취약계층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쪽방지역 혈액검사

서울시 쪽방촌 거주자의 조기 암예방을 위해 암표지자 혈액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 정상범위를 벗어나는 대상자를 병원으로 2차 연계하여 혈액 재검사를 실시하고 진료 후 정밀검사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취약계층 결핵검사

주로 야외나 쉼터에서 단체생활을 하는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본원과 시산하 병원이 연합하여 X-ray, 객담검사를 포함한 결핵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통해 전염성질환인 결핵환자를 발견하여 전염을 막고 병원으로 2차 연계하여 환자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 쪽방거주자 안경지원(★신규사업)

서울시 쪽방촌 거주자를 대상으로 시력검안 및 안경지원을 해드려 눈도 마음도 어두웠던 분들에게 밝은 세상 찾아주는 활동을 월 1회 이상 진행하고 있습니다. 돈보기와 시력저하용으로 구분되어 사용하기도 편하고 검사 당일 바로 안경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 의료취약계층 건강교육

노숙자 및 쪽방촌 거주자를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건강교육을 진행하여 올바른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원하는 교육을 조사하여 교육 주제 선정에 반영하고 있으며 특성에 맞는 맞춤 건강교육을 통해 삶의 질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지원실적(3월 ~ 5월)

사업명	지원 횟수	지원 인원	참여기관
쪽방지역 혈액검사	5회	597명	서울의료원 외 8개 시립병원 연합
취약계층 결핵검사	1회	243명	서울의료원, 서북병원
쪽방거주자 안경지원	1회	53명	서울의료원, 테크노마트 안경원
의료취약계층 건강교육	4회	156명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서북병원, 은평병원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신종 감염병 메르스로 인해 우리사회가 많은 비용을 지불 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서울의료원은 격리병동에서 메르스 확진자 치료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치료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우리 사회는 이번과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원인 분석 및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서울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편집인 김현숙

왕진가방을 집에서 받아 보자

왕진가방을 집이나 회사로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은 편집실로 주소나 E-mail을 알려주세요.

무료로 배달해 드립니다. 주소가 변경되신 분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원고를 기다립니다

함께 꾸려가는 <왕진가방>은 직원분이나 환우 여러분 누구나 환영합니다. 병원소식, 문학단상, 의학상식, 병실 동정, 동호회 소식, 의료장비 소개, 영화감상, 여행기, 제언 등 살아가는 얘기들, 나누고 싶은 이야기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제출처: <왕진가방> 편집실: Tel. 02-2276-7131~4 E-mail: seoulmcpr@hanmail.net

편집위원

편집인 김현숙(홍보팀, 소아청소년과 02-2276-8654)

편집주간 홍보팀(홍보팀 02-2276-7131)

편집위원 박주연(홍보팀 02-2276-7134)

김훈희(홍보팀 02-2276-7133)

김주연(가정의학과 02-2276-8625)

이주현(의학도서실 02-2276-8505)

남진희(영상의학과 02-2276-7251)

최혜린(간호부 02-2276-8003)

이주안(재활의학센터 02-2276-7467)

정보은(기획경영팀 02-2276-7045)

객원위원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정성하(기획팀 02-2036-0234)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곽희준(총무팀 02-920-9388)





하늘에서 선물한 나눔,

그 마음 잊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진작 전했어야 했는데 조금 늦었어요.”
故염의석 님이 1천만 원을 다사랑회에 기부했습니다. 마지막을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으셨나봅니다. 가족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전달해준 것입니다.
“우리 가족보다 더 헌신적으로 도와준 송숙희 과장님과 간호사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다사랑회 후원안내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한 공익의료발전은 여러분들의 후원과 참여로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시민을 위한 착한 의료, 공익의료가 모두의 건강한 삶을 지켜주는 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사단법인 다사랑회에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2-2276-8198
email dasarang.khji@gmail.com



벗이 되어준 환자안심병동 간호사들

애초에 먼저 다른 병원을 찾아가봤지만 병세를 판단할 수 없었는데 우리 병원에서 송숙희 과장님을 통해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특발성폐섬유화증, 만성폐질환입니다. 101병동의 김미혜 파트장은 故염의석 님을 조용하고 점잖은 분이셨다고 회상합니다.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산소호흡기를 끼고 숨이 가빠도 신문과 책을 즐겨 읽으시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이 병동을 자주 찾으셨어요. 이제껏 건강하게 지내왔다고 말씀하 시면서 살아온 인생이야기를 들려주시곤 했답니다.”

故염의석 님은 서울의료원 환자안심병동에서 포괄간호 서비스를 받았고 함께 있던 간호사들이 벗이 되어주었습니다. 서울의료원은 모든 병실이 포괄간호 서비스 시범병 원으로 전환되어 환자와 보호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을 함께해준 사람들에게 대한 고마움

“아버지는 새 옷을 사 입으시고 송숙희 과장님에게 보여드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해맑 은 아이처럼 즐겁게 병원에 가셨어요. 아버지가 입원하셨을 때에는 과장님이 종종 밤 12 시에서 1시 사이 병실에 오셔서 아버지를 보고 손을 꼭 잡아드리고 가셨지요. 그리고 아 버지는 고박고박 칭찬 직원 업서를 작성해서 몰래 넣어두기도 하셨고요. 그만큼 본인을 돌보고 가깝게 지내는 간호사들에게도 많이 고마워하신 것 같아요.” 가족들 또한 101병 동과 131병동에서 수고한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생전에 늘 검소 하게 지낸 고인은 1인실 병동에 있다가도 5인실 병동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잘 몰라서 그렇지, 마음만 있다면 기부가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렇게 기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기부할 수 있도록 좀 더 알리고 좋은 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전해주신 기부금은 시민들이 함께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공익의료발전을 위해 소중 히 사용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선물한 나눔, 그 마음 잊지 않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서울의료원 공익의료발전후원회 (사)다사랑회는?

사단법인 다사랑회는 2004년, 공공의료기관인 서울의료원 직원들에 의해 자발적으 로 시작되었습니다. 다사랑회는 지난 10년간 저소득층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의료비를 지 원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2013년 11월에는 더욱 적극적인 모금을 통한 공익의료지원 사업의 확장을 위해 다사랑회를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하였습니다. 사단법인으로 전환한 다사랑회는 ‘서울의료원 공익의료발전 후원회’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공익의료활동 지원,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민 캠페인, 국내외 의료봉사활동 및 구호 지원, 차세대 공익의료인 장학사업 등의 활동영역을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익의료를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건강한 세상 만들기예 함께 하고자 합니다.

2015년 서울의료원 진료시간표

(2015. 8. 1 기준)

진료과	의사	오전	오후	전문진료분야	특수클리닉	
내과	소화기 센터	이계희	월, 수, 금	화, 목	급·만성간염, 간경화	C형간염 클리닉
		장유현	월, 화	화, 목	체담도 진단·치료 내시경 (체·담도염, 담석, 췌장암)	
		김봉룡	월, 수, 목	월	상·하부 위장관 질환, 치료내시경	
		김장언	금	화, 수	소화성 궤양, 대장염, 치료내시경	
		임지환	화, 목	수	위 식도 대장 질환 및 치료내시경	
		배준용	수	목, 금	위장관 질환, 치료내시경, 간경화, 간염	
		박혜원	금	월, 금	위 식도 대장 질환 및 치료내시경	
		조진경		월, 목	위 식도 대장 질환 및 치료내시경	
	순환기	김석연	화, 수	월, 목	고혈압, 심부전, 심혈관조영술	
		원경현	월, 목, 금	화, 수	흉통, 심장판막질환, 고혈압, 고지혈증, 심혈관조영술	
		변경민	화, 목	월, 금	부정맥, 심박동기, 제세동기, 실신	
		손관협	월, 수, 금	목	고혈압, 심부전, 심혈관조영술, 고지혈증 (8/6~ 진료)	
	호흡기	송숙희	월, 화(13주), 수, 목, 금	월, 수, 금	천식, 호흡기질환	성인천식 및 만성기침 클리닉
		김수현	장기연수 중		중환자 치료, 폐결핵, 폐렴 및 호흡기 질환	금연 클리닉
		김혜옥	화, 수, 금	화, 목	폐암 및 호흡기 질환	
	신장	강나리	화, 수, 금	화, 목	급만성 신장병, 사구체신염, 투석 (혈액, 복막)	
		김민영	월, 목	월, 수, 금	급만성 신장병, 사구체신염, 투석 (혈액, 복막)	
	내분비 대사	범선희	화, 수, 목	월, 금	당뇨, 고지혈증, 갑상선질환	
		김태호	월, 금	화, 수, 목	당뇨, 갑상선질환, 비만, 이상지질혈증, 부신 및 뇌하수체질환, 골다공증	
	혈액종양	전현정	월, 수	화, 수, 금	항암치료, 암검사, 빈혈 (8/10~ 진료)	
이덕주		화, 목, 금	월, 목	항암치료, 암검사, 빈혈		
감염	최재필	화, 수, 금	월, 목	감염성 질환, 불명열	해외여행자 클리닉	
류마티스	최병용	월, 수, 금	월, 화, 수, 목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척추염, 통풍, 섬유근통		
일반진료	전공의	월~금		일반진료		
호스피스완화 의료센터	전현정	월	수, 금	암통증관리 (8/10~ 진료)		
	이덕주	화, 목	월	암통증관리		
신경과	안진영	화, 수, 목	월, 화, 수, 목	뇌졸중, 치매, 파킨슨, 운동장애, 두통, 어지럼증, 간질	파킨슨병 및 운동질환 클리닉	
	박대환	화, 목	월, 수, 목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 뇌혈관질환, 중풍	뇌졸중 예방 클리닉	
	허재혁	월, 화, 금	화, 수	치매, 알츠하이머병, 건망증, 혈관성치매, 뇌졸중	치매 및 기억장애 클리닉	
	박상소	월, 수, 금	화, 금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 뇌혈관질환, 어지럼증	뇌졸중 클리닉	
	김지은	수, 목, 금	월, 금	근육 및 말초신경질환, 척수질환, 다발성경화증, 간질, 수면장애	손발저림 클리닉	
	전공의		월, 수, 목, 금	일반질환		
외과	장용석	수, 금	월	대장암, 치질, 염증성 장질환	대장항문 클리닉	
	윤진	월, 금	수	간, 담도, 췌장	담석증 클리닉	
	박상수	화, 목	금	대장암, 항문양성질환, 변실금	대장암 클리닉	
	이경복	월	화, 목	혈관외과	하지정맥류 클리닉	
	조동희	월, 목	화	유방, 갑상선	하지정맥류 클리닉	
	권유진	화, 수	금	간담체외과, 혈관외과, 이식, 탈장, 기타 복강경 수술		
	정지웅	화	수, 목	유방, 갑상선		
	이슬	수, 금	월	상부위장관, 복강경수술		
신경외과	송관영	목	월	뇌종양, 뇌혈관, 척추, 혈관성 치매	뇌혈관 클리닉	
	강동수	월, 금	수	뇌혈관, 척추, 간질	척추디스크 클리닉	
	공민호	화, 목, 금	화	척추질환, 뇌졸중, 뇌종양, 뇌외상	척추통증 클리닉	
	김정희	수	화, 목	경추질환 및 요통, 뇌졸중, 뇌내시경	말초정위기능클리닉	
	장세연	화	수, 금	뇌혈관, 뇌종양, 뇌졸중, 뇌외상, 척추	뇌혈관 클리닉	
	민학진	월, 목	화, 수	척추외과	척추측만증 클리닉	
정형외과	서재성	수	월, 목	슬관절질환, 인공슬관절술, 슬관절관절경술	슬관절인공관절 클리닉	
	신성기	금	화, 목	척추질환 및 외상, 척추변형, 미세척추수술		
	김기천	화, 수	금	족부족관절 질환, 족부 외상, 당뇨발, 스포츠족부질환		
	김상민	월, 금	수	고관절질환, 슬관절질환, 인공관절, 하지골절		
	김정환	화, 목	월	수부외과, 수부외상		
	최혜연	목	화, 금	견관절학, 스포츠의학		
	전공의	월	수	일반질환		



콜센터(예약전화): 02)2276-7000

진료과	의사	오전	오후	전문진료분야	특수클리닉
흉부외과	손진성	수, 금	월, 수	심장및혈관외과, 폐 · 식도외과, 흉부종양 및 외상, 하지정맥류, 기흉	하지정맥류 클리닉
	백강석	월, 화, 목	화, 목	대동맥 및 말초혈관의 혈관내 치료 및 수술, 정맥질환, 일반흉부질환	
비뇨기과	김민수	화, 수, 금	화, 목	내비뇨, 전립선비대, 요로결석, 배뇨장애, 종양	
	이신영	월, 목	월, 수, 금	비뇨기암, 요로결석, 전립선, 여성요실금, 소아비뇨	요실금 클리닉
산부인과	조 숙	금	수	폐경기, 비뇨부인과, 골다공증, 부인과성형	폐경기 클리닉
	최지향	장기연수 중		골반경수술,부인과종양, 부인과성형	부인과복강경 클리닉
	육지형	화, 수, 목	월, 화, 수, 금	산전관리, 고위험임신, 정밀초음파	산전정밀초음파 클리닉
	한보령	월, 화, 금	목	정신임신, 임신중 합병증, 조산 및 고위험임신, 태아기형, 일반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염혜영	월, 목, 금	화, 목	소아 천식, 아토피피부염, 식품알레르기	소아아토피피부염, 천식 클리닉
	장성희	월, 화, 금	수, 목	감염질환, 예방접종	예방접종 클리닉
	김현숙	화, 수, 목, 금	월, 수	신경질환, 두통, 발달, 수면	두통 클리닉
	서현주	화, 수	월, 금	신생아, 미숙아, 육아상담	미숙아 클리닉
	임미선	월, 수, 목	화, 목, 금	소화기, 영양, 비만, 복통	영양, 비만, 만성복통 클리닉
이비인후과	정우찬	월, 수, 목, 금	수	두경부외과, 부비동염, 중이염	어지럼증 클리닉
	김지훈	월, 화, 목, 금	월	두경부 및 갑상선 종양, 음성질환, 코질환, 비중격만곡증	음성 클리닉
	정준희	화, 수	화, 목, 금	중이염, 난청, 부비동염, 비염, 이과, 비과	보청기클리닉
정신건강 의학과	최진숙	수	월, 화, 목	소아정신과, 학습장애, 청소년 우울, 가족치료	소아정신건강 클리닉/발달장애 클리닉
	장용이	월, 화	수, 목	정신분열, 정신유전학	정신분열 클리닉
	심현보	월, 수	목, 금	우울증, 불안장애	우울증 클리닉
	이해우	목, 금	월, 화	치매, 노인우울, 기억장애, 수면장애, 심인성통증	수면 클리닉
	전공의		수, 금	일반질환	
안과	오주연	월, 화, 목	수, 목	백내장, 녹내장	
	김현진	수, 금	월, 화, 금	망막유리체, 포도막염, 미숙아망막증	
피부과	신준우	월, 목, 금	수, 목	피부알러지, 건선, 백반증	
	김현정	화, 수	월, 화, 수, 금	아토피 피부염, 여드름, 광노화, 피부외과	아토피클리닉, 항노화클리닉
치과	김옥순	월~금	월, 화, 수, 금	보철, 임플란트, 악관절장애	
	방보영	외래진료일정 없음		보존, 보철	
	김태윤	외래진료일정 없음		보존, 보철, 치주	
	하니플라자	이현우	월~금	구강악안면외과, 임플란트, 양악수술, 턱관절, 보존, 보철	
재활의학과	박희동	화, 수, 금	월, 수	뇌졸중, 오십견, 요통, 손발저림	통증 클리닉
	오주선	수	월, 화, 목, 금	뇌신경재활, 어깨통증, 목통증, 무릎통증	안면마비, 삼킴장애 클리닉
	김종규	월, 목	화, 수, 금	척추손상재활, 소아재활, 근골격계통증, 전기진단, 암재활	척추손상 클리닉/소아마비 클리닉
	전공의	화, 금	목	일반진료	
가정의학과	이수형	수, 금	월, 목	비만, 건강증진, 노인의학, 아토피피부염	비만 클리닉
	김무영	월, 화	수, 금	노인의학, 만성피로/섬유근통증후군, 행동의학 (금연, 체중감량)	어르신건강 클리닉
	김주연	목	화, 금	건강증진 (예방접종), 비만, 외국인진료	비만 클리닉
	전공의		화, 수	일차진료, 예방접종, 여행자의학	
성형외과	강준모	화, 금	월, 수, 목	미용(눈,주름,홍터,코,지방,보톡스,필러) 성형, 재건 성형	미용 성형 클리닉
직업환경의학과	김규상	월, 화, 수		소음성 난청, 직업성 천식, 직업성 근골격계질환과 인간공학	
	이경덕	화, 목, 금		직업병, 직업성 폐질환, 생활습관병	

▣ 선택진료란?

의료법 제46조에 의거,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의사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선택진료 의사의 직접적인 의료행위에 따른 추가비용은 환자 및 보호자가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 추가비용 징수 의사의 자격요건

다음 각호 요건을 갖춘 재직 의사들의 80%의 범위 안에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 의사를 지정합니다.

- ① 법 제5조에 따른 면허취득 후 15년이 경과한 치과의사 및 한의사
- ② 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의사
- ③ 대학병원 또는 대학부속 한방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 등

- **파란색** 색깔이 표시된 의사는 선택진료가 가능한 의사입니다.
- 진료시간 중 **파란색**으로 표시된 요일은 **클리닉 진료시간**입니다. 진료시간 중 **빨간색**이 표시된 요일은 **강남분원 진료시간**입니다.
- 진료시간표는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안내는 각 진료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진료시간은 병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스마트한 방법

단 한 번의 촬영으로 전신 암을 진단하는 PET-CT

PET-CT(양전자 단층 촬영기)란 몸 속에 숨어있는
암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첨단 의료기기입니다.

5mm 크기의 미세 암세포 조기발견 및 전이 여부 평가
치매, 간질 등 뇌혈관 질환 진단
암 수술 후 재발 유무 판정



첨단 장비 PET-CT로 암을 조기 진단하세요 **예약문의: 서울의료원 핵의학과 02-2276-7261**

천만 서울시민의 건강주치의,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지하철

- **6호선 봉화산역** 2번출구에서 도보 8분
3번출구에서 버스승차(2012, 2234, 1122)
- **7호선 중화역** 3번출구 앞 횡단보도 건너 버스승차(1122, 2115)
- **경춘선 신내역** 1번출구에서 도보 8분

버스

- 신내9단지 서울의료원 정문
(240, 241, 1122, 1221, 2012, 2113, 2115, 2227, 2234, 2311, 2312)
- 서울의료원 후문(241, 2012, 2114, 2115, 2311, 2312)

승용차

- 강남방면: 성수대교-동부간선도로-신내길-신내동방면-서울의료원
- 강북방면: 동1로에서 태릉입구역-신내동방면-서울의료원
- 강서방면: 성산대교-북부간선도로-태릉-신내C-서울의료원
- 강동방면: 올림픽대로-강일C-구리IC-신내C-서울의료원

진료시간

- **상담 시간** 평일 08:30~17:30 토요일 08:30~12:30
- **상담 방법** 전화예약 후 진료당일 예약시간 10분 전까지
원무과에 접수 후 진료
- **오전 진료** 09:00~12:30
- **중식 시간** 12:30~13:30
- **오후 진료** 13:30~17:30
- **토요일** 09:00~12:30



셔틀버스

• 강남분원 노선

강남분원-수서경찰서-일원1동-수서역-신내동 본원

• 강남분원 출발 : 평일 9:00, 13:30

• 신내동 본원 출발 : 평일 11:30, 16:00

승하차장 수서경찰서 석탑플라자 앞
일원1동 주민센터 건너편
수서역 1-1번 출구(학여울 방향 20M)

• 중랑구 노선

서울의료원-상봉역-중화역-봉화산역-서울의료원-
북부병원-서울의료원

• 서울의료원 출발 : 평일 9:00~16:00 (60분 간격)

승하차장 상봉역 1번출구 / 중화역 1번출구
봉화산역 3번출구 / 북부병원 정문 앞



콜센터(예약전화): 02)2276-7000



서울시 중랑구 신내로 156 www.seoulmc.or.kr